제1장 계획의 기조

Ⅰ. 계획의 개요

Ⅱ. 지역 여건 및 환경 분석

Ⅲ. 거창군 장기발전 기본구상

Ⅳ. 거창군 미래발전의 지표설정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지역간 비교우위를 갖춘 거창군의 경쟁력 강화 필요

○ 세계화로 국가간 경쟁 보다는 지역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경쟁의 단위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지역경쟁”의 시대에 돌입

○ 한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저발전의 악순환에 처할 가능성이 많아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창군의 성장동력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지역내외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 필요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등 거창군 발전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확대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개발이 필요

○ 교통여건의 불리를 극복하고 급속한 고령화, 복지수요 증대, 취약한 재정기반 등 지역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창의 ‘장기적 먹거리’ 개발이 필요

□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는 종합적 지역발전 청사진 마련

○ 거창은 수려한 자연, 정자 등 유교문화, 덕유산, 금원산, 감악산, 사과 및 딸기 등 특산품 등 지역의 풍부한 발전 잠재력과 서부 경남의 중심지라는 입지적 강점을 보유

○ 동시에 창조적 지역발전, 향토자원 개발, 공공 디자인 향상 등 인지도 높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거창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밑그림이 필요

□ 상위·관련계획을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미래 발전지침 마련

○ 초광역개발권, 내륙특화발전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경남종합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거창군의 각 분야별 관련계획을 수용하고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의 마련이 요구

○ 지역의 특화 발전과 분권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전략에 부응하는 기초생활권 차원의 미래 거창군 지역발전의 지침을 마련

2) 계획의 목적

□ 거창의 도시기능 및 역할의 재정립

○ 남해안 발전시대와 내륙특화발전벨트와 연계하고, 서부경남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확고하게 도약·발전하기 위한 거창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발굴

○ 지역간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개성과 특색을 갖춘 기초생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거창군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

□ 거창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 발전상 제시

○ 거창군의 개발 잠재력과 입지적 강점을 지역의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고, 거창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거창 발전의 미래상'을 개발하고 제시

○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거창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일치된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중장기적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개발, 제시

○ 수변공간 개발,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해 21세기 남부지역의 산업·문화·관광 중심도시로서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하는 거창발전의 지향이 되는 비전과 발전방향을 설정

□ 거창발전의 구체적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 마련

○ 특화된 비전과 발전방향을 토대로 실현가능하고 거창의 매력과 인지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전략을 제시

○ 거창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취약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국책사업을 선점하여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

○ 일자리, 소득창출로 활력이 넘칠 뿐 아니라, 문화, 관광, 교육, 복지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른 지역의 견본이 되는 지역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수단을 개발

<그림 1-1-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계획의 성격

□ 종합계획

○ 물적 도시기반과 사회경제적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보유

○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는 물론 정주공간개발, 산업육성, 환경생태, 교통, 복지, 문화·관광, 방재 등 부문계획과 행·재정 등 집행계획을 아우르는 종합적 내용으로 구성

□ 장기실천계획

○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거창발전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장기실천계획

○ 계획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전제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제시

□ 연계·전략계획

○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국가정책 및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고 기존의 거창군 부문별 관련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 수용하여 가급적 계획내용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

○ 백화점식의 사업나열이 아닌 중점이행 및 메가 프로젝트 발굴, 추진방안 제시 등 핵심 발전목표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전략계획을 가급적 지향

□ 의사소통적 계획

○ 거창군의 집행부, 의회, 시민 등에게 직접 구속력을 행사하는 법정 계획은 아니지만 거창군 구성원의 의사를 결집, 반영한 참여적인 계획

○ 1읍 11개 면에 대한 순회 의견조사, 공무원 워크샵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한 주민과 현장 밀착적인 계획

□ 행정지침계획

○ 거창의 다른 계획에 비해 우선적 위치에서 군정운영의 지침을 제공하는 최상위의 방향 및 전략 제시적 성격을 보유한 행정지침계획

○ 향후 10년의 거창군 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급적 최상위 단계에서 검토, 참고할 수 있는 시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2) 계획의 지향

□ 국내 최초, 온리 원(Only one) 대안의 개발

○ 개발 제시하는 대안이 가급적 거창의 지명도, 인지도를 최고로 향상시킬 수 있는 산출물을 지향

○ 산업, 문화, 교통, 복지, 교육, 수변공간 개발 등에서 제시하는 대안이 가급적 국내 최초나 유일한 독창적 대안을 개발

□ 실천가능성 확보

○ 계획의 주요 내용은 거창군의 여건과 역량, 잠재력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과 타당성을 갖춘 전략적 정책과 사업을 중심으로 수립

○ 거창군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고 투자재원 확보대책을 제시하여 정책의 실천성 제고

□ 연계성 및 일관성 유지

○ 확정 또는 수립중인 각종 국가계획 및 경남도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함으로써 재원 확보와 상생발전은 물론, 사업간 연계성과 파급효과의 시너지를 제고

○ 거창군 단체장 공약사업, 창조도시 등 시정업무계획 등 당면 현안사업을 검토,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정책의 통합성, 정합성, 일관성을 유지

□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 주요 계획내용과 정책방향은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리성과 객관성에 바탕을 둔 대안을 개발하고, 계획을 수립

○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분석과 과학적 근거 제시를 통해 장기발전계획안 마련

□ 주민요구 수렴 및 참여

○ 장기발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구상, 계획수립, 사업추진의 전 단계에 걸쳐 군민의 절대적 협력과 참여 보장

○ 미래 비전의 설정 및 정책과 전략의 구상과정에서 군민의 의견과 요구(needs)를 조사·분석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 중심의 계획을 수립

3)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거창군 전 지역(1읍 11면)과 인접한 주변 자치단체

- 계획의 1차적 범위 : 거창군 행정구역 전역
- 2차적 공간적 범위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내륙특화발전벨트, 기초생활권)에 의거, 상생발전관계에 있는 인접 시·군을 포함한 광역적 권역(경남 서부 내륙축 : 함양, 산청, 합천)을 고려

(1차 공간범위)

(2차 공간범위)

<그림 1-1-2> 계획의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3년 - 2022년(10년간)

○ 기준년도 : 2012년도

○ 2012년을 기점으로 2021년도 목표의 장기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계획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

- 1단계 단기 목표연도 : 2013 - 2015(3년)
- 2단계 중기 목표연도 : 2016 - 2019(4년)
- 3단계 장기 목표연도 : 2020 - 2022(3년)

※ 단기(2013-2015)는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작성

□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기조

-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대내외적 환경과 여건변화 전망, 지역 현황과 성장잠재력 분석, 거창군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 제시 등

○ 부문별 계획 : 분야별 목표 및 발전전략 마련

- 사업별로 실천 가능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 각 부문별 중점이행 및 메가 프로젝트 방안 별도 제시

○ 권역별 계획 : 거창읍과 11개 면지역의 상보적, 균형적 발전 달성

○ 집행 및 재원계획 : 단계별 행·재정 개선 및 투자 재원 조달계획 등

3. 계획의 구성과 수립방법

1) 계획의 구성체계

□ 계획의 기조

○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대내외적 환경과 여건변화 전망, 지역 현황과 발전 잠재력 분석, 거창군 비래상 및 비전, 발전방향, 지역발전지표 등 제시

○ 군민, 공무원 등에 대한 거창발전에 관한 비전 설정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조사·수렴

□ 부문별 계획

○ SWOT 분석과 Logic Tree 분석 등을 통해 거창군 장기발전구상의 비전,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부문과 시책 추출

○ 부문을 구성하는 각 분야별 발전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실행계획 마련

○ 부문의 구성(8개 부문) : 공간구조 및 정주생활권, 산업, 농업, 교육·복지, 문화·관광, 도시기반, 생태·환경, 방재·안전

- 중점이행사업 및 메가 프로젝트 발굴 : 거창군 장기발전을 선도할 핵심 전략사업(Mega Project)을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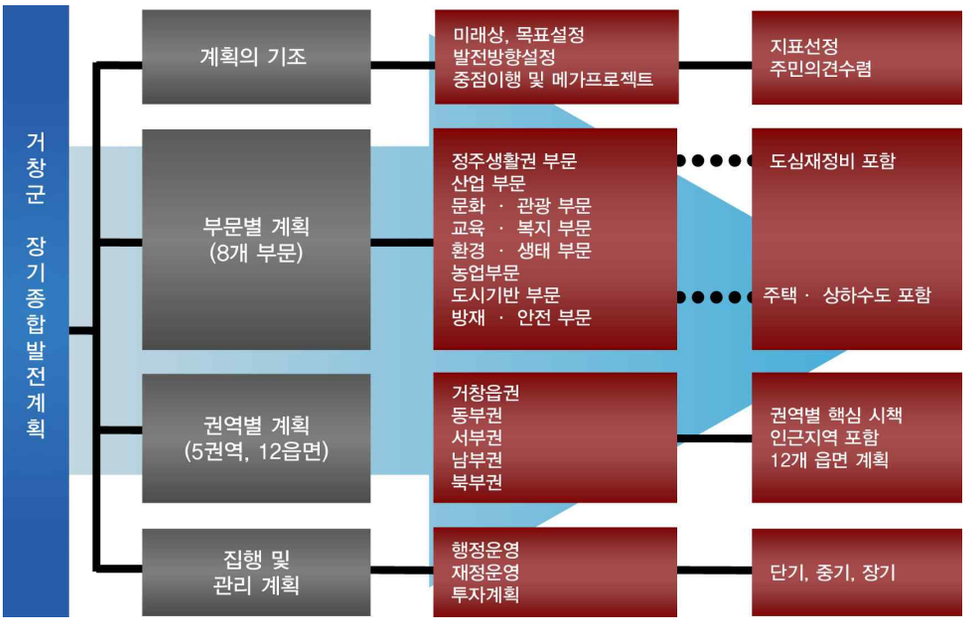
□ 읍면 및 권역별 계획

○ 거창읍권,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 동부권의 권역별 특화발전 전략의 수립

○ 12개 읍면별 지역특화 발전전략의 마련

□ 집행 및 관리계획

○ 행정체계 개편, 조직인력 운용 등의 행정운영계획, 사업 투자 재원확보 등의 재정계획, 사업별 우선순위의 투자계획으로 구성



<그림 1-1-3> 계획의 구성체계

2) 계획부문별 연구내용

□ 계획의 기조

○ 대내외적 환경변화 및 전망

- 대외적 메가트랜드(동북아 시장 전망, 신기술, 신산업 전망, 국제무역환경변화 전망 등)
- 대내적 환경변화(국가 지역정책 및 대형 국책사업, 경남 및 인접 자치단체 정책, 사회문화적 이슈 등)

○ 현황 및 지역여건 분석

- 자연 및 인문적 특성, 사회경제, 인구 및 산업, 교통 및 상하수도 도시인프라, 주택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관련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 수정계획, 제1차 지역발전 5개년계획(초광역개발권 및 광역경제권 계획), 경남도발전계획 등 상위계획과 거창군 장기발전계획(2003) 등 자체 사업계획 등

○ 수요조사 및 도시사례 분석

-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 공무원 등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국내외 유사 해외도시 사례조사 및 시사점 추출

○ 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

- SWOT, Logic Tree 분석을 통한 미래상 및 비전설정, 발전방향 및 목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제 도출, 지표설정

○ 지역발전지표 설정

- 인구, GRDP, 산업구조 등 기본지표 설정
- 기타 생활환경지표 전망

○ 중점이행 사업 및 메가 프로젝트 발굴

- 거창군의 기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선도하는 대형 프로젝트 구상(관광과 문화의 융복합 프로젝트, 식품산업 프로젝트, 수변공간 개발, 일자리 창출의 특화산업 육성 등을 주도)

<표 1-1-1> 계획기조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구분	연구영역
계획의 기조	현황 및 여건분석	- 자연, 인문, 지정학적 특성분석 - 인구, 토지이용, 주택, 환경, 상하수도, 문화 등 현황조사 - 산업기반 및 구조분석, 성장산업 추출 - 도시공간구조 특성, 지역발전의 방향 분석 - 대내외적 여건과 환경변화 분석
	관련계획 검토	-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 초광역개발권계획, 경남도발전계획 등 상위 계획 검토 - 내륙특화발전계획,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등 자체계획 검토 - 관련계획과 장기발전계획의 연계성 강화 방안 검토
	수요조사	- 주민 또는 실무공무원 등에 대한 발전방향, 추진과제, 미래상, 분야별 개발 수요 조사 - 수요분석을 통해 계획수립의 시사점 도출
	도시사례 조사	- 국내외 유사지역 조사 - 중점이행 과제 및 메가 프로젝트 구상을 위한 개별 사례 조사
	SWOT 및 Logic Tree 분석	- 현황조사, 의견조사 등 고려한 SWOT분석을 통해 거창군 발전의 한계와 잠재력, 강약점 도출 - Logic Tree 분석을 통한 추진과제 검토, 대안평가 - 지역위상 정립
	미래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	- 거창군 미래상 및 비전 검토 -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목표 설정 - 추진과제 및 부문 선정 - 주요 지표의 설정
	메가 프로젝트 발굴	- 산업·관광·문화·생태 융복합화 프로젝트, 식품산업 프로젝트, 수변공간 개발, 교육경쟁력 강화 등

□ 부문별·권역별 계획

○ 정주생활권, 산업, 문화·관광, 교육·복지, 생태환경, 농업, 도시기반, 방재·안전 등 8개 부문의 연구영역

- 해당 부문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기본방향,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시책 개발 등으로 구성
- 부문별 추진시책에 대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

○ 권역별 계획의 연구영역은 권역의 기본구상과 권역별 세부 발전전략으로 구성

- 5개 권역 및 12개 읍면별 발전방향 및 특화발전전략, 핵심시책의 추진방안 제시

<표 1-1-2> 부문별·권역별 계획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분 야	연구영역
부문별 계획	정주생활권	- 공간구조의 현황분석, 생활권 분석, 토지이용 특성 분석, 공간구조 개편의 대안개발, 추진전략 제시
	산업	- 산업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식품산업 육성방안, 기존산업(1차, 2차) 경쟁력 강화 방안, 서비스업 부가가치 제고방안,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등 대안개발, 추진전략 제시
	문화·관광	- 문화 및 관광의 현황 및 문제점, 전통 문화역사의 보전 및 함양 등 대안개발 및 추진전략 제시 - 관광현황 및 문제점,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 축제 및 이벤트 육성 등 대안개발, 추진전략 제시
	교육·복지	- 사회복지 현황 및 문제점, 복지시스템 개선, 노약자 복지 방안 등 대안개발 및 추진전략 제시 - 교육 경쟁력 강화, 우수인재양성, 평생교육, 산학연 협동 등 교육증진방안 개발 및 추진전략 제시
	환경·생태	- 환경생태분야 현황 및 문제점, 수변공간 개발, 수자원 보전과 이용, 숲자원 보전·활용, 새로운 생태자원개발 및 추진전략 제시
	농업	-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특산품 육성 및 마케팅, 농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추진전략 제시
	도시기반	- 도시기반 현황 및 문제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및 확충방안 및 추진전략 제시
	방재·안전	- 지역방재시스템 효율화, 선진기술 도입 및 주민참여 촉진 방안
권역별 계획	기본구상	- 권역구분, 권역별 발전의 기본방향 제시
	권역별 발전전략	- 권역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 추진전략 및 핵심시책 제시, 단계별 주요시책 추진전략 제시
	읍면별 발전전략	- 읍면별 현황 및 문제점, 발전방향, 추진전략 및 핵심시책 제시, 단계별 주요시책 추진전략 제시

□ 중점이행사업 및 메가프로젝트 실행계획

○ 에코 시티(Eco-City) 육성 전략 제시

-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정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시티(Eco-City)' 조성
- 거창의 자연적·환경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모델 연구제시

○ 거창 경관 테마랜드 생산적 조성 방안 연구

- 외래 관광객 유인 : 특색있는 친환경 볼거리 조성
- 주민 소득원 창출 : 주민 생활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소득원 발굴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 남하면 무릉리 일원

○ 위천천 및 황강천변 체계적 활용 방안

– 위천천 및 황강천변 수변 공간의 친환경적 개발 모델

○ 신재생 에너지분야 지역 최적화 모델 연구

–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거창의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최적화 모델 제시

○ 수변 레포츠 공원 조성 방안

– 검토 지역 : 거창군 남하면 합천댐 상류 수몰 유역 내

–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연계 구상

– 공인 수상스키 경기장 등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등

–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수상스키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의

○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대책

– 88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 공사 완공에 대비, 대구권 및 광주권, 대전권 인구를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인 방안

– 인근 대도시의 '빨대 효과'로 인한 거창의 지역상권 피해 보호대책

□ 집행·관리계획

○ 행정계획

– 거창군의 행정현황 및 문제점 검토, 행정체계 개선방안, 행정통합 대응, 행정기구 및 인력계획, 행정제도 개선방안

○ 재정계획

–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재정전망 및 수요예측, 재원확보 방안 개발, 예산, 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추진전략

○ 투자계획

– 개발투자의 현황 및 문제점, 투자수요 전망,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추진사업의 결정 및 사업별 투자계획 수립

<표 1-1-3> 집행·관리계획의 주요 연구영역

구분	분야	연구영역
집행 및 관리계획	행정	- 거창군 행정현황 및 문제점, 개선과제 도출, 인력, 조직, 제도개선 등 개선방안 및 추진전략 제시
	재정	- 거창군 재정현황 및 문제점, 재정수요예측, 재원마련대책 개발 및 추진전략 제시
	투자계획	- 개발투자의 현황 및 문제점, 투자수요전망, 단기, 중기, 장기별 투자계획

3) 계획의 수립체계

(1) 계획수립 참여주체 및 역할

□ 계획수립 연구진

○ 계획기조 및 산업, 관광, 문화, 행정, 재정,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전문 연구진으로 구성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정주생활권 정비, 수변공간 개발 등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서울대 연구팀이 협력하여 계획 수립

○ 지역사회의 역사와 지리, 발전의 사정 등에 밝은 지역출신의 외부 연구진을 가급적 활용

□ 연구자문위원회

○ 계획의 구체성과 현실 적용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학계, 연구소, 행정실무자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전반에 대한 자문

□ 거창군 지원팀

○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거창군 숙원, 역점 및 현안 사업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거창군청 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된 기획감사실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연구지원팀(TF)을 구성, 운영

□ 주민, 의회

○ 연구수행 제반 단계에서 수립 중인 계획이나 도출 대안에 대해서 거창군 의회의 자문 및 지역주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 유관 공공연구기관

○ 각종 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과의 정보·자료 교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거창군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정책 협의

(2) 계획수립의 절차

○ 계획은 4단계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각 단계별로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계획 내용을 구체화

- 1단계(구상계획) : 군청협의,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워크샵
- 2단계(기본계획) : 거창군 의회 및 전문가 워크샵
- 3단계(실행계획) : 공청회 개최
- 4단계(행·재정계획) : 군청협의

○ 각 단계마다 각종 국가 및 자치단체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주요 국책연구원 및 경남발전연구원 등과의 정보·자료 교류 및 워크샵 개최를 통해 세부시책을 보완

<그림 1-1-4> 계획수립의 절차

4.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계획

1) 자료·정보 등의 수집계획

□ 선행연구 자료

○ 정부의 국책사업계획, 국내 유사군(郡)의 장기발전계획 및 미래전략 등 지역발전에 대한 선행연구 보고서 및 부문별 계획수립 관련 참고자료

- 거창군 실무공무원, 유관 국책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등과의 네트워크 활용

□ 통계자료

○ 거창군의 지리, 인문사회, 공간구조, 제도특성, 경제활동 및 산업여건, 문화관광, 복지, 교육, 환경, 교통, 주택, 행·재정 등에 대한 통계 및 현황자료

- 거창군 실무공무원, 통계청 KOSIS, 지역위·행안부·국토부·지경부의 지역통계시스템 활용

□ 유사도시 사례자료

○ 인구규모, 문화적 유산, 자원, 역사, 지정학적 위치 등에서 거창군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내외 지역발전방향, 전략, 시책 등 자료

- 문헌조사 및 현지방문조사 병행

2) 주민수요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의 미래상, 발전방향, 중점과제, 개발수요, 시책의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조사방식 : 구조화된 질문서에 의한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거창군 읍면별 주민(약 1,000명)과 거창군 공무원

○ 표본추출 : 읍면별 인구에 따른 비례층화할당추출방법 사용

○ 조사내용 : 생활환경실태, 거창군의 문제점, 강점과 잠재력, 거창군 발전방향, 역점 추진부문, 부문별 핵심시책에 대한 선호도 등

3) 읍면 순회 의견 청취

○ 조사목적 : 계회수립을 위한 읍면 현안 및 미래상, 중점과제 및 개발수요, 시책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조사방식 : 연구진 12개 읍면 순회, 자유 토론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마을 지도자, 이장 등과 대면

○ 순회시기 : 연구 과제 착수 후 90일 이내

Ⅱ. 지역 여건 및 환경 분석

1. 대내외 거시환경 변화

1) 대외적 환경변화

□ 세계경제의 침체와 동북아경제의 부상

○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경기침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등 뉴노멀(new normal)이 상시화된 시대를 맞이함

○ 세계경제를 선도해 온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경제중심이 다원화되면서 동북아 경제권이 급속도로 성장

- 동북아 3국(한국, 중복, 일본)이 세계인구의 25%, 세계GDP의 약 22% 점유
-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2010년 중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세계 제1위의 수출국 제2위의 수입국의 위상을 차지
- 교역량 증가로 동북아가 세계 물동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5대 항만(싱가폴, 홍콩, 부산 상하이, 카오슝)이 모두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동북아 관광 수요가 크게 증가

□ 환경규제 강화와 에너지, 자원 가격 급등

○ 화석연료의 사용 확대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구온난화가 범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

-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평균기온의 경우 6.4℃가, 해수면의 경우 59cm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리우 세계환경정상회의의 기후변화협약 채택,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의 교토의정서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본격화

- 국제 교역에서 환경기준을 근거로 무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 상품이 증대되고 재활용 제품의 유해요소 규제가 심화될 전망
- 자원소비형이고 환경파괴형인 산업구조를 자원재생형이고 환경친화형 산업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조류에 부응하여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대처

○ 석유의존형 에너지체제가 지속되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원자재, 천연자원, 곡물 등의 가격이 불안정

□ 주요국과의 FTA 체결

○ 세계경제가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가간 협력체계로 바뀌면서 FTA 체결이 확산

○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FTA를 주요한 통상정책으로 채택해 왔으며 그동안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인도와 FTA 발효, 미국 EU와 FTA 타결,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등을 추진

○ FTA의 완결을 위해서는 동북아 FTA의 추진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농수축산물 수입개방 등 부정적 파급효과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임

- 특히 2010년 11월 기준 대중국 수출 25.0%, 수입은 16.9%로 교역의 중국 의존도는 물론 농수산물의 대중국 수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

2) 대내적 환경변화

□ 내륙특화발전 추진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등 3차원적 권역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역발전사업을 추진

○ 그 중에서 초광역개발권은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산업·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권역으로서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서해안 산업벨트, 남해안 선벨트, 남북접경벨트 및 내륙벨트 등 4+α 벨트가 해당

○ 초광역개발권 중 내륙벨트로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 연계협력권역 등을 검토 중이며 정부의 신지역발전체계가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상대적으로 발전이 부진한 내륙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행정의 광역화 추세

○ 2008년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언급한 이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망라하여 지난 100여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체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에 착수

– 2010년 10월 1일자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1년 2월 16일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설치

○ 현재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차단체 통합을 추진 중

○ 거창군의 경우에도 인근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등과 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한 바 있으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11), 향후 정부가 마련한 통합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통합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 고령화·저성장 추세의 정착

○ 한국은 2000년 고령화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0년에는 11.0% 수준에서 2018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젊은 연령층의 도시이주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거창군의 경우에도 24.8%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음

○ 아직은 다른 OECD국가에 비해 고령화율이 다소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의 진전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어서 UN(2006) World Population Prospects에서 2050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국가로 일본과 함께 한국을 지목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우려

–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노령인구 증가, 생산인구 감소, 생산성 저하, 복지수요 증대, 개발수요 감소 등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초래

○ 고령화와 함께 저성장 추세가 본격화되어 1997년, 2008년 두 차례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저성장 기조로 진입한 것으로 평가

– 외환위기 이전(1991~1997년)에 평균 7.5%에 달하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1998~2008년)에는 4.4%, 2008년 금융위기 이후(2009~2011년)에는 3.4%로 크게 떨어졌으며 2012년 현재 3%대의 잠재성장률도 향후 더욱 하락할 전망

-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01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덫에 걸릴 수도 있음을 경고
-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의 돌입에 따라 이제는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고위험 등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이 상시화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웰빙가치 및 여가수요 증가

○ 웰빙(well-being)이란 행복, 삶의 만족, 질병없는 상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2000대 이후 우리 사회에 급속하게 확산

○ 웰빙 트랜드는 물질문명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하여 이제는 일반적인 생활양식으로 정착할 단계에 이르고 있음

- 서구에서 복지 측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웰빙 바람이 만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의 심화, 질병의 만연, 고령화사회 도래 등에 따라 건강을 지향하는 생활패턴이 보편화될 전망

○ 소득 증대, 건강에 대한 가치 증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여가, 위락, 스포츠 등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

- 종래의 소극적 여가활동(독서, 컴퓨터게임, 놀이 등)에서 점차 적극적 여가활동(등산. 스포츠, 하이킹, 옥외레저활동, 해양레저활동 등)으로 전환
- 웰빙과 문화·관광·스포츠 등 타 분야의 융복합화로 장수촌, 체험관광, 생태도시, 대안의료 등 새로운 신산업분야가 탄생

○ 웰빙 및 여가·위락수요의 증가로 인해 농촌의 자연, 환경, 경관에 대한 가치도 그만큼 커지고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

<그림 1-2-1> 대내외적 환경변화

2.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1) 여건 및 현황분석

(1) 자연적 여건

□ 독립된 산간분지 형태의 지형지세

○ 거창군은 경상남도 최서북부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백산맥의 준령에 둘러싸인 진안고원에 이어져있는 산지지대의 일부임

○ 북쪽에 덕유산(1,594미터), 삼봉산(1,254미터), 서쪽에 기백산(1,311미터), 금원산(1,352미터), 동쪽에 두리봉(1,135m), 의상봉(1,046m), 남쪽에 보록산(796m), 철마산(705m)등 1,500m에서 700m의 다양한 높이의 산들로 둘러싸인 산간분지임

○ 영천, 아월천, 대산천 및 황강 등의 하천유역에는 좁은 들이 형성되어 비옥한 농지를 이루고 있음

□ 기상

○ 2010년 기준 평균기온은 11.8℃이며, 강수량은 1,548.5mm, 평균풍속은 1.5m/s를 나타냄

<표 1-2-1> 거창군의 기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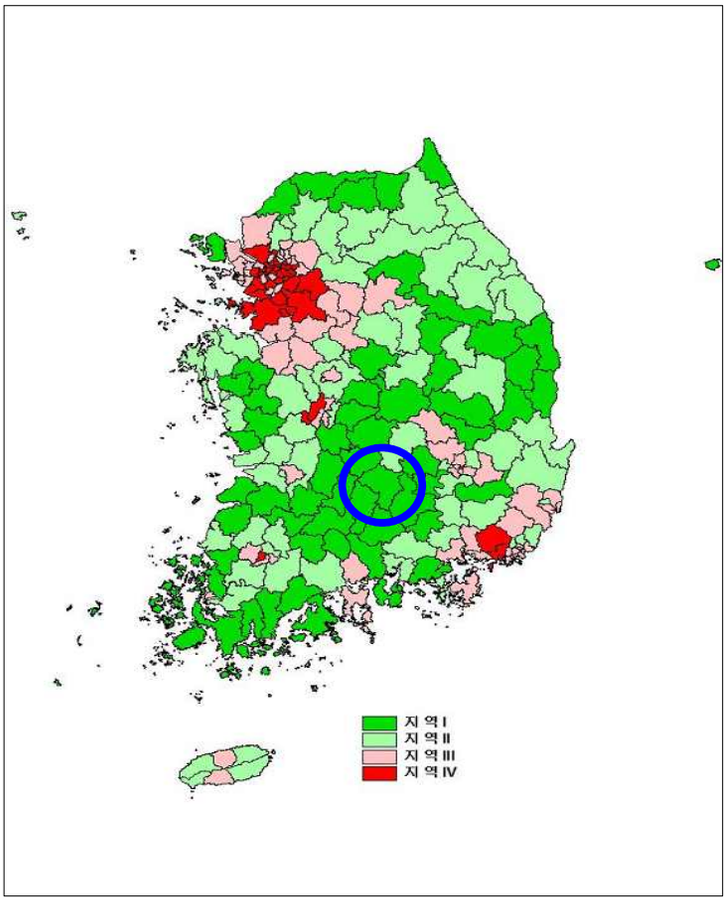
구분	기온(℃)			강수량 (mm)	상대습도(%)	일조시간	풍속(m/s)
연도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평균		평균
2005	12.2	19.1	37.0	1,244.9	66.4	2,283.2	1.4
2006	12.6	19.5	35.8	1,411.4	68.6	2,096.3	1.3
2007	13.1	20.0	35.2	1,729.0	68.3	1,955.9	1.3
2008	12.1	19.4	35.5	615.7	66.3	2,102.3	1.5
2009	12.0	19.3	34.4	975.3	65.6	2,103.5	1.5
2010	11.8	18.7	35.0	1,548.5	69.9	1,960.1	1.5

(2) 지역발전

□ 지역 발전도의 열세

○ 지역발전도에서 전국의 시군구 234개 가운데 175위를 차지(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8)

○ 인구(3개), 산업·경제(4개), 재정(3)개, 복지(2개), 인프라(2개)의 5개 부문, 14개 지표로 측정된 지역발전수준이 Ⅰ권역에 속함(지역Ⅰ은 가장 저발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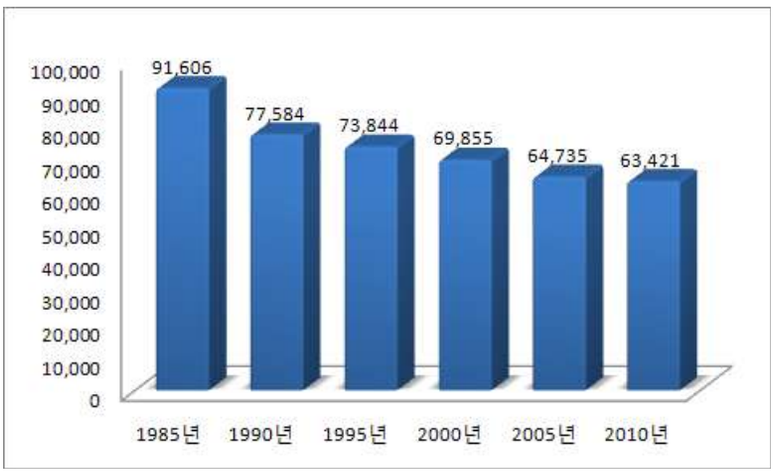
<그림 1-2-2> 지역의 발전도

(3) 인구

□ 인구유출의 점진적 안정화

○ 거창군은 한국 여타의 농어촌 지역처럼 1985~2010년의 25여년 동안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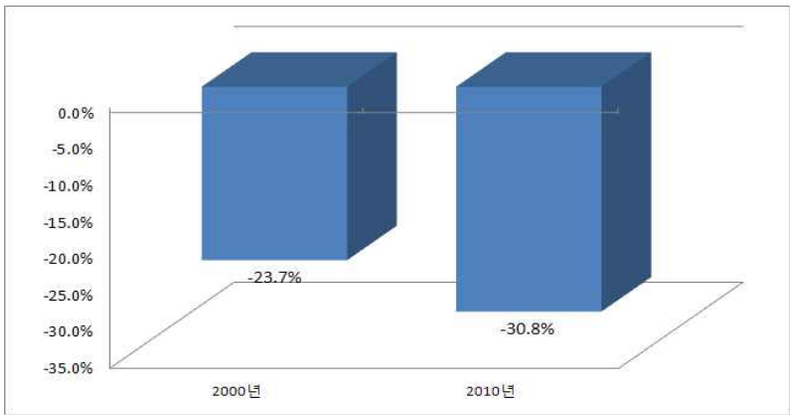
○ 1985년 91,606인에 달하던 인구가 2010년 63,421인까지 감소하여 25년 동안 28,185인의 인구가 유출



<그림 1-2-3> 거창의 인구변화(1985년-2010년)

출처 : 제 50회 거창군 통계연보

○ 1985년이 비해 2000년은 23.7% 2010년은 30.8%의 인구가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는 인구감소율이 그 이전보다 다소 둔화



<그림 1-2-4> 거창의 인구 감소율(1985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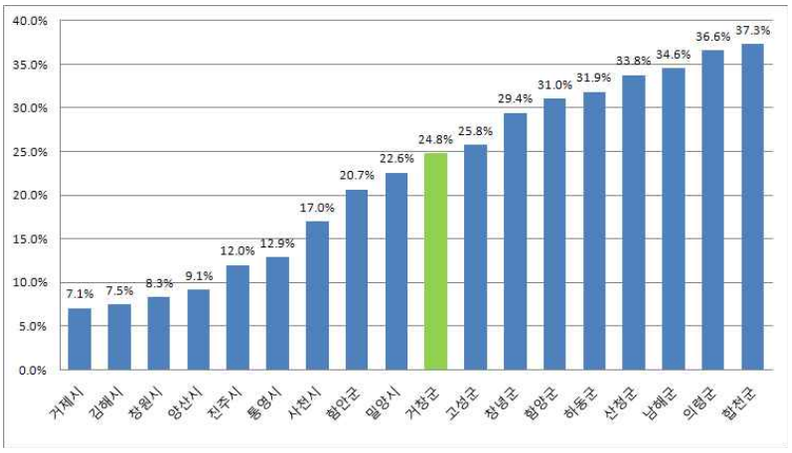
출처 : 제 50회 거창군 통계연보

□ 높은 수준의 고령화

○ 인구구성에서 전형적인 고령화사회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남 가운데서는 고령화의 비율이 중간 정도임

○ 65세 이상 인구가 24.8%를 차지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나 경남의 군 중에서는 가장 낮은 고령화율을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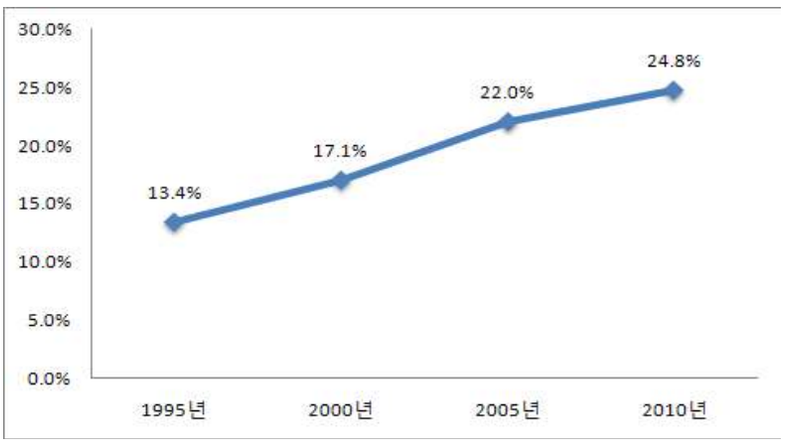
– 경남의 군 중에서는 인구측면에서 비교적 가장 양호한 활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림 1-2-5> 경남의 고령화율(2010년)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의 고령화율은 1995년에서 2010년의 15년 동안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13.4%에서 24.8%로 상승)



<그림 1-2-6> 거창의 고령화율의 변화(1995-2010년)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4) 고용

□ 1차산업인 농업이 고용의 주류를 차지

○ 군민 가운데 농가인구가 22,055인으로 농가인구율이 전체 인구 중에서 38.63%를 차지하고 있음

<표 1-2-2> 거창의 농가인구율

농가인구(A)	총인구(B)	농가 인구율(A/B)
24,013	63,421	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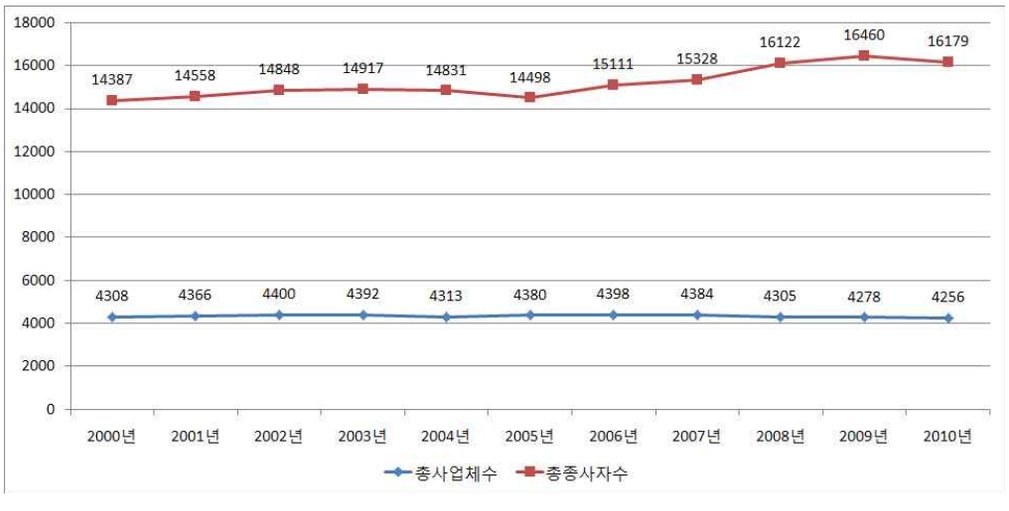
출처 : 거창군 통계연보(2011)

□ 완만한 고용의 증가

○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사업체수는 지난 10여년 동안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4,308개에서 2010년 4,256개로 감소

○ 사업체 종사자수는 2000년 14,387인에서 2010년 16,179인으로 증가



<그림 1-2-7> 거창군 사업체수 및 사업체 종사자수의 변화(2000년-2010년)

출처 : 통계청 사업체 총조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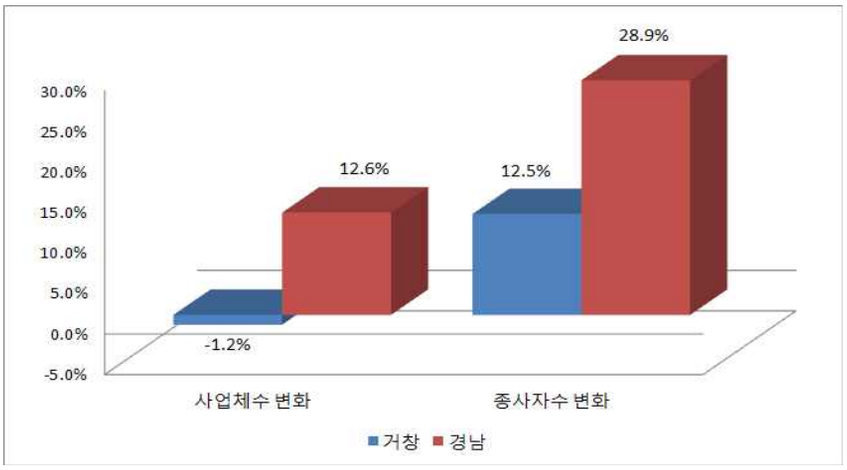
<표 1-2-3> 거창군 산업별 취업인구

구 분	사업체(개)	종사자(명)
전산업	4,256	16,179
농업, 임업 및 어업	8	68
광업	7	119
제조업	313	1,6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	61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76
건설업	170	1,597
도매 및 소매업	1,192	2,553
운수업	211	702
숙박 및 음식점업	991	2,18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181
금융 및 보험업	59	696
부동산업 및 임대업	43	15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	21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4	1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4	1,311
교육 서비스업	264	1,79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9	1,4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00	242
협회및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88	984

출처 : 통계청(2010), 사업체 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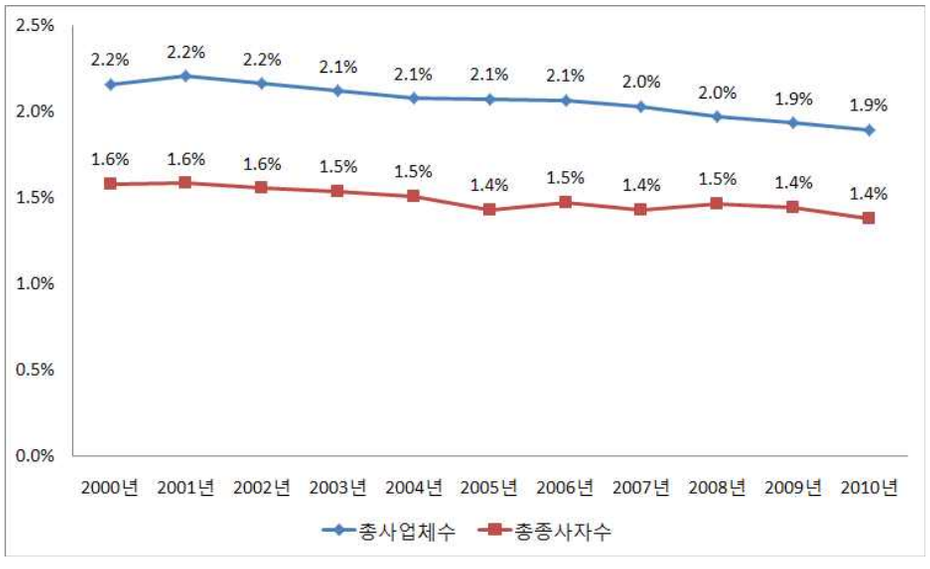
□ 경남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고용의 증가

○ 2000년 대비 2010년의 거창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의 증가율은 경남의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그림 1-2-8> 거창군과 경남의 사업체수, 종사자수 증가율 (2000년 대비)
출처 : 통계청 사업체 총조사(2000-2010)

○ 경남에서 차지하는 거창의 사업체수 비율도 10여년 동안 2.2%에서 1.9%로 다소 감소



<그림 1-2-9> 경남 대비 거창군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율

출처 : 통계청 사업체 총조사(2000-2010)

(5) 공간구조

□ 비도시적 토지이용

○ 임야가 76.3%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 산촌지역이며, 농경지도 15.1%를 차지

○ 도시적 토지이용인 대지의 비율은 1.1%에 불과

<표 1-2-4> 거창군 토지이용현황

구분	합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면적(㎢)	804.1	39.9	81.0	613.6	9.1	60.5
비율	100.0%	5.0%	10.1%	76.3%	1.1%	7.5%

출처 : 거창군 통계연보(2011)

□ 읍 중심의 정주공간 구조 형성

○ 1985년에 비해 거창읍의 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집중성(centrality)이 강화

- 거창만 군내 인구 점유율에서 20.4%로 증가하고 나머지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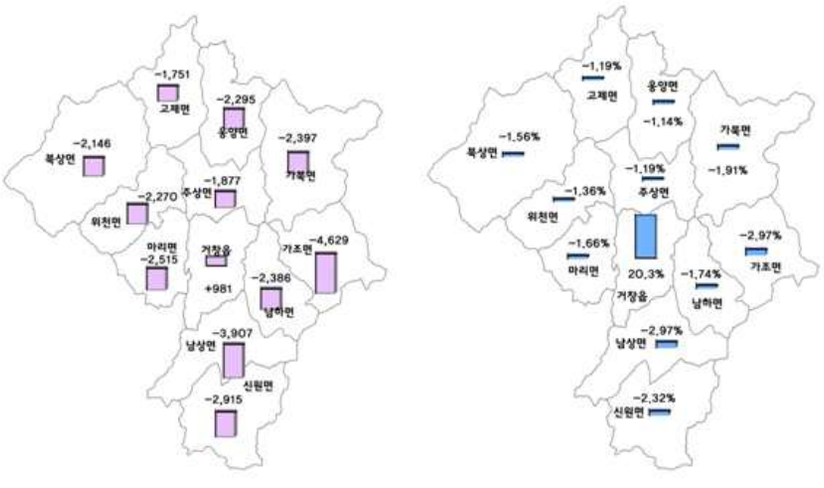
○ 군내 인구점유율의 감소폭이 가장 큰 곳은 가조면, 남상면임

- 가조, 남상 등 면의 발전세가 높은 곳의 인구유출이 가장 큰 특징을 보이고 있음

<표 1-2-5> 거창군 지역별 인구 점유율의 변화

구분	1985년		2010년		점유율변화 (85-10년)	인구증감 (85-10년)
	인구	점유율	인구	점유율		
거창읍	38,920	42.5%	39,901	62.9%	20.4%	981
주상면	3,640	4.0%	1,763	2.8%	-1.2%	-1,877
웅양면	4,439	4.8%	2,144	3.4%	-1.5%	-2,295
고제면	3,240	3.5%	1,489	2.3%	-1.2%	-1,751
북상면	3,746	4.1%	1,600	2.5%	-1.6%	-2,146
위천면	4,581	5.0%	2,311	3.6%	-1.4%	-2,270
마리면	4,753	5.2%	2,238	3.5%	-1.7%	-2,515
남상면	6,585	7.2%	2,678	4.2%	-3.0%	-3,907
남하면	4,156	4.5%	1,770	2.8%	-1.7%	-2,386
신원면	4,694	5.1%	1,779	2.8%	-2.3%	-2,915
가조면	8,921	9.7%	4,292	6.8%	-3.0%	-4,629
가북면	3,853	4.2%	1,456	2.3%	-1.9%	-2,397
계	91,528	-	63,421	-	-	-28,107

출처 : 거창군 통계연보(2011)



<그림 1-2-10> 거창군 지역별 인구변화, 인구점유율 변화

(6) 생활여건

□ 기초 생활서비스의 전반적인 부족

○ 기초 인프라를 포함한 6대 생활서비스는 분석에서 전국에 대비 양호한 편은 아님(행정안전부, 2008)

– 교육, 의료, 기초인프라 등이 서비스가 열악하며, 그 다음으로 교육, 복지, 문화, 주거 순으로 열악함

〈표 1-2-6〉 거창군의 생활서비스 수준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 인프라
–	– –	–	–	–	++	– –

※ 해당분야의 전국 평균 이상은 +, 평균이상의 평균이상은 ++, 평균이하는 –, 평균의 평균이하는 – –로 표시

○ 학급당 학생수가 적어 교육의 환경은 우수하나, 공교육시설의 포화와 사교육 시설의 부재로 인하여 교육의 악순환이 지속됨(2011년 기준 학교 수 52개, 교원 1인당 학생 수 13명)

○ 종합병원 및 병의원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지역소득원의 기반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임(2010년 병의원 수 56개, 보건소 및 지소 30개)

○ 도서관 등 공공문화시설의 수는 2011년 기준 5개로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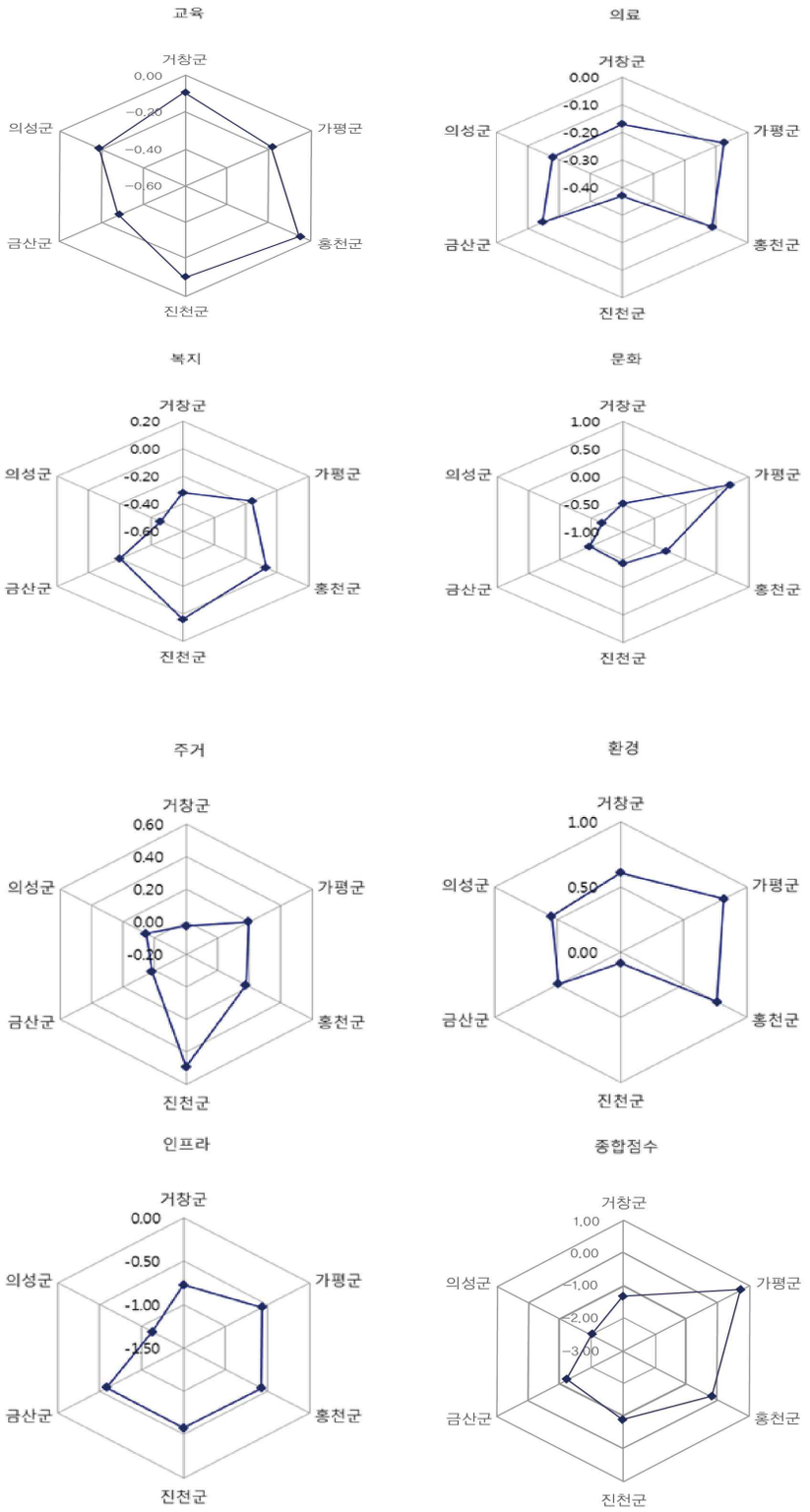
□ 생활환경수준의 타 지역간 비교

○ 유사 인구규모의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경북 의성에 비해서는 생활환경이 양호하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열악한 수준임

○ 주거, 복지, 기초인프라 등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2-7> 거창군 생활환경수준의 타 지역간 비교

구분		인구 (2010년)	7개 부문 지표							종합 점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 인프라	
경남	거창군	63,421	−0.15	−0.17	−0.32	−0.49	−0.03	0.61	−0.78	−1.32
경기	가평군	50,879	−0.18	−0.08	−0.16	0.70	0.19	0.82	−0.56	0.73
강원	홍천군	62,888	−0.05	−0.11	−0.07	−0.31	0.18	0.77	−0.57	−0.16
충북	진천군	61,915	−0.10	−0.37	0.04	−0.43	0.49	0.09	−0.58	−0.85
충남	금산군	52,952	−0.28	−0.15	−0.20	−0.47	0.02	0.49	−0.58	−1.17
경북	의성군	51,247	−0.19	−0.18	−0.46	−0.67	0.05	0.55	−1.13	−2.02



<그림 1-2-11> 거창군 생활환경 수준의 타 지역간 비교

(7) 교통

□ 국가기간 교통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 거창을 경유하는 주요 고속도로는 88고속도로(광주~대구)로 88고속도로를 통해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와 중부내륙고속도로(여주~마산) 및 경부고속도로와 연결

- 현재 4차로 확장 공사 중인 88고속도로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신설되면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88고속도로는 2015년 완공예정이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착공시기는 계속 늦어지고 있어 현재 열악한 88고속도로로는 접근성이 불편한 편

- 이외 국도 24호선, 27호선에 의해 무주·김천, 함양, 산청 등으로 연결됨

○ 그러나 국가기간 교통망인 대진 고속도로가 거창을 경유하지 않고 함양을 경유함으로 인해 국가기간 교통망으로의 접근성이 비교적 열악한 형편

- 국도를 제외하고 철도 인프라 등도 부재하여 대구, 김천, 진주방면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교통 수단선택에 제약

□ 도로연장의 연평균 증가율과 포장률은 0.2%와 68.6%에 불과

○ 2000년 이후 최근 10년 간 총 도로연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0.2%에 불과하고 고속도로의 연평균 증가율도 0.3%에 그침

- 함양의 경우 일반국도는 증가하지 않았으나 고속도로 연장이 10년 간 연평균 5.3% 증가하여 거창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도로 포장률은 2010년을 기준으로 68.6%에 불과하며, 특히 시군도의 경우 41.4%에 그침

<표 1-2-8> 거창군 도로연장의 변화

도로연장	2000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계	492,807	282,717	107,240	102,850	503,114	344,942	63,552	94,620	0.2%
고속도로	30,560	30,560	-	-	31,400	31,400	-	-	0.3%
일반국도	72,377	72,377	-	-	89,424	87,024	-	2,400	2.1%
지방도	166,470	108,680	42,140	15,650	165,890	136,858	22,952	6,080	0.0%
시군도	223,400	71,100	65,100	87,200	216,400	89,660	40,600	86,140	-0.3%

(8) 도시인프라

□ 저조한 상하수도 보급률

○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대비 2010년 소폭 상승(2.8% 증가)

○ 1일 1인당 급수량은 2005년 371Ｌ에서 2010년 424Ｌ로 증가

<표 1-2-9> 거창군 연도별 상수도 급수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급수인구	39,079	39,889	39,898	39,386	39,731	39,976
보급률(%)	60.2	62.4	62.1	62.3	62.9	63.0
급수량 (㎥/일)	14,479	15,586	14,949	15,563	16,164	16,956
1일1인당 급수량(Ｌ)	371	391	375	395	407	424

출처 : 거창군 통계연보(2011)

<표 1-2-10> 거창군 연도별 하수처리 및 보급률 현황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처리방법			보급률(%)
			물리적(1차)	생물학적(2차)	고도(3차)	
2010년	63,421	41,135	-	41,135	-	64.71

출처 : 거창군 통계연보(2011)

□ 양호한 주택 보급률

○ 2010년 기준 주택 보급률은 110.34%로 양호한 편이며, 단독주택이 18,301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1-2-11> 거창군 주택보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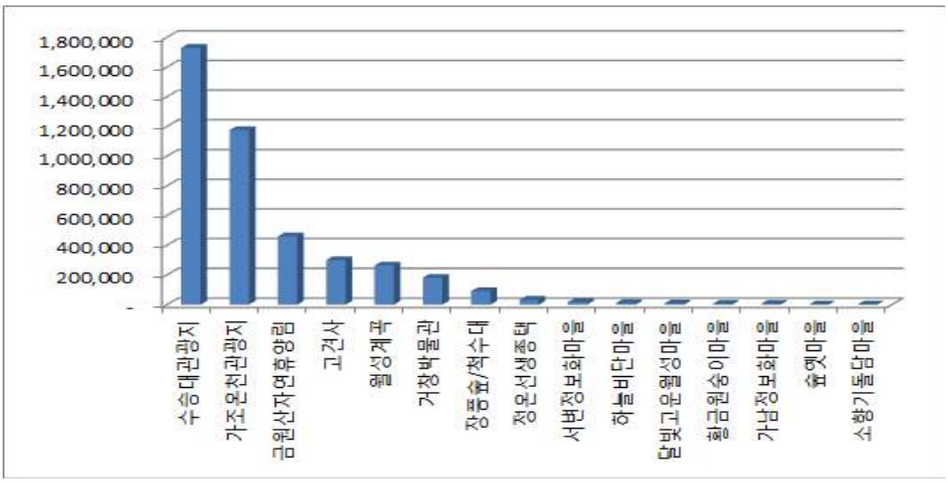
구분	가구수	합계 (보급률)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타
주택현황	23,459	25,887 (110.34%)	18,301	6,173	509	488	416
비율	-	100%	70.7%	23.8%	2.0%	1.9%	1.6%

(9) 관광

□ 자연명승지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한계

○ 거창군의 주요 관광지는 수승대 관광지, 가조온천관광지, 금원산 휴양림, 월성계곡 등으로 주로 자연명승지 중심으로 관광자원이 개발되어 있어 지역에 보다 오래 체류하는 체험형 관광자원이 부족

- WTO(세계관광기구)는 21세기 관광은 기존 대중관광의 반작용으로 자연환경과 문화보전의 체험형 대안관광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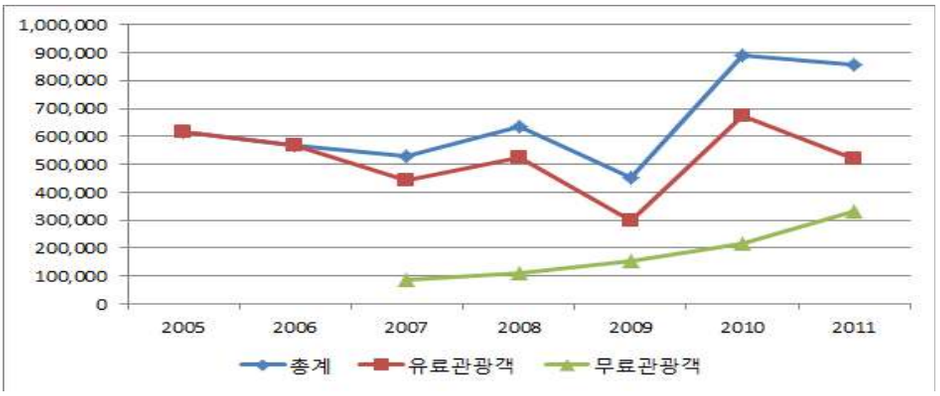


<그림 1-2-12> 주요 관광지 현황 (2005~2011년 관광객 집객 기준)

□ 저조한 관광수요 및 관광객의 여름 성수기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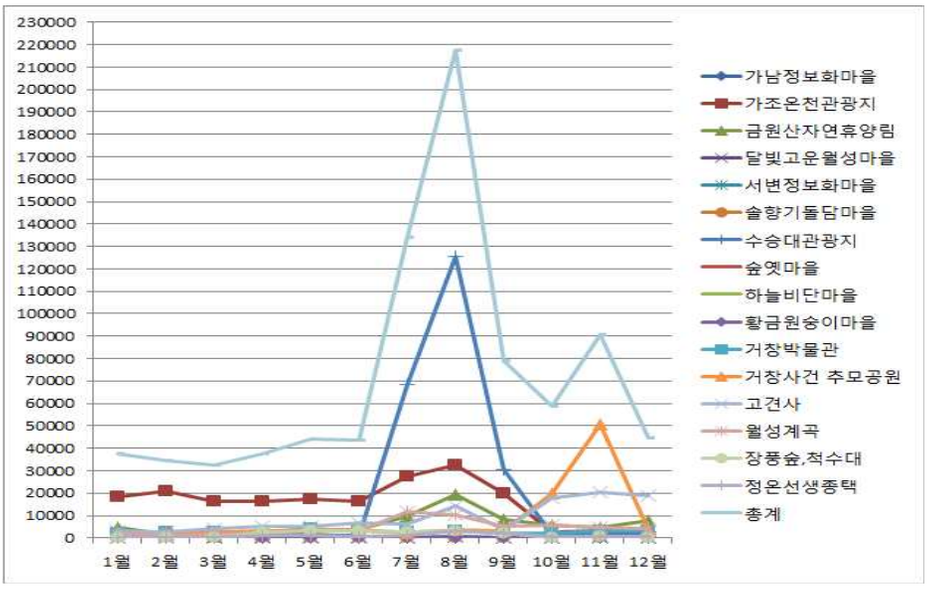
○ 거창군의 관광객은 2011년 현재 약 854,612명으로 경남 시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집객율을 보임(관광지식정보시스템, 2011)

- 함안군(897천명), 의령군(1,060천명)과 함께 도내 낮은 관광수요층 형성



<그림 1-2-13> 거창군 관광객 현황

○ 수승대 관광지, 가조온천관광지 등 주요 관광지의 계절적 편향이 극심하여, 여름 특히 8월 한달 동안 한 해 관광객의 25%(217,377명)가 집중



<그림 1-2-14> 2011년 월별 관광객 현황

□ 미래지향적 관광자원개발 필요

○ WTO가 제시한 미래의 10대 관광행태는 생태관광, 문화관광, 농촌관광, 해양관광, 스포츠관광, 모험관광, 도시관광 등이 있으며, 크루즈, 테마파크, 국제회의 등의 관광산업도 발전 산업으로 예상

○ 이러한 국제관광동향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집중 육성해야 할 관광아이템으로 의료관광, 전통생활체험관광, MICE, 한류관광, 음식/축제관광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1-2-12> 한국관광의 집중육성 아이템

구분	%	순위	구분	%	순위
의료관광	10.3	1	사찰, 종교 성지	4.0	12
전통생활 체험 관광 (고택, 전통마을)	9.3	2	도시 관광	3.2	13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	8.7	3	태권도	3.0	14
평화, 통일 관광 (DMZ)	7.9	4	테마파크	2.6	15
한류관광 (영화, 드라마 촬영지)	7.5	5	재래시장 관광	2.1	16
쇼핑관광	7.2	6	공연 관광	2.0	17
음식 관광	6.8	7	산, 숲길 관광 (백두 대간 등)	1.5	18
지역축제 관광	5.6	8	수학 여행 (청소년 관광)	1.3	19
해안 (Beach), 갯벌체험 관광	5.5	9	5대 고궁 관광	1.2	20
고대왕조 유적 관광 (경주, 부여, 공주 등)	5.2	10	온천 관광	0.7	21
섬, 크루즈 관광	4.4	11	합 계	100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0), 제3차 관광진흥5개년계획

○ 수승대 뿐만 아니라 건계정, 요수정 등 자연명승지를 따라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유산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 동향에 발맞춘 미래지향적 관광자원 개발 필요

(10) 행정 및 재정

□ 재정자립기반 취약

○ '11년 거창군의 예산규모는 406,923백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342,479백만원, 특별회계 64,444백만원임(재정고, 2011년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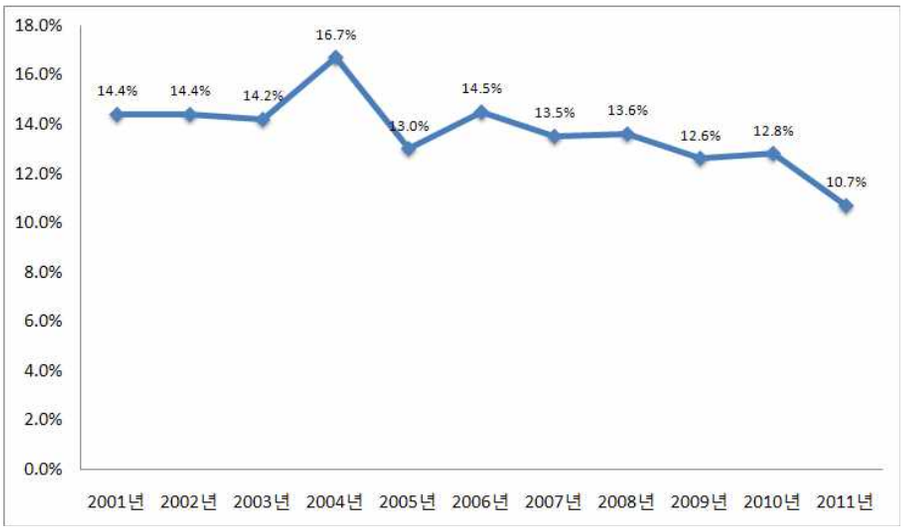
○ '11년 재정자립도는 10.7%로 재정자립 기반이 상당히 취약

- 재정 자립도는 2011년 기준 전국 244개 시군구 중 229위(16개 시도 본청 포함)이며,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18위에 해당

□ 재정자립도 악화 추세

○ 거창의 재정자립 정도를 대표하는 재정자립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

- '04년 16.7%로 다소 상승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01년 14.4%에서 '11년 10.7% 수준으로 저하되고 있음
-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의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력지수는 '01년 14.3%에서 '11년 16.4%로 소폭 상승



<그림 1-2-15> 거창군의 재정자립도 추이

□ 미래 재정수요의 확대

○ 지역개발 투자 등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거창은 미래의 재정수요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증대

○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여가에 대한 수요증대 등 21C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와 그로 인한 행정수요의 질적 제고 및 양적인 증대가 예상

○ 선진지역들은 선제적인 행정혁신의 추진과 시민참여 열린 행정을 보다 강화

○ 고객지향의 공공서비스 구현과 지역주민 중심의 공공정책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거창군정에 대한 군민참여의 필요성 증대

3. 상위·관련계획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 계획의 기조 및 목표

○ 한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유무역시대의 글로벌 트렌드를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 실현 및 정주환경, 인프라, 산업, 문화, 복지 등 전분야에 걸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국토'실현

○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국토 실현을 위한 계획 목표

- 경쟁력 있는 통합국토
-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 품격있는 매력국토
-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

□ 국토공간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 초광역개발권 중심의 개방형 국토발전축 형성을 통한 대외적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5+2 광역경제권 중심의 거점도시권 육성 및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대내적 발전을 유도

○ 대외적으로 세계를 향한 한반도의 위상 강화와 광역경제권간 연계를 위한 개방적 국토발전축 형성

- 3개 연안지역과 대북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초광역벨트를 구축
- 광역경제권간의 연계 및 연안개방축-내륙을 연계하는 내륙신발전축 구축

○ 대내적으로 광역경제권간 교류·연계 강화를 통한 자체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자원순환형 녹색국토 공간구조 구축

- 광역경제권이 거점역할을 하는 광역연계형 국토구조로 개편
- 4대강을 활용한 녹색성장산업 활성화 추진 및 하천생태 복원을 통해 강 중심의 지역발전 추진

□ 동남권 발전방향 : 환태평양 시대의 해양·물류 및 첨단기간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항만·물류·경제권 중심지
- 동북아 국제무역·금융·영상·컨벤션산업 중심지
- 동북아 해양문화·과학·생태관광의 중심지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지식기반산업 중심지
- 환태평양 녹색에너지 성장 거점

○ 동남권 발전방향

-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산업의 거점 육성
- 환태평양시대 유라시아 관문 역할을 위한 교통 및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
- 동북아 신성장 전략산업벨트 및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구축
- 녹색성장 거점 및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
- 협력 거버넌스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거창군 관련 주요내용

○ 덕유산·지리산권은 향토식품산업 및 국제적인 휴양형 산악관광과 문화를 융합한 녹색성장 거점으로 육성

- 지리산·덕유산관을 중심으로 건강·휴양·레저·체험·생태·교육 등이 융복합된 '에코테인먼트 거점'육성

○ 동남권의 주력산업에 대해 저탄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및 녹색기술산업 유치를 통해 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

- 산업·교통(물류)·주택 등 도시 전분야에 저탄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단지 조성
- 에너지 관련 산·학·연 시설을 활용한 동남권 에너지클러스터 구축및 환태평양권의 풍부한 자원과 연계 발전 도모

○ 생태공원 조성, 상·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체계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추진으로 쾌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추진 및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저탄소 사회 시스템 구축 및 동남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

- 낙동강 종합정비를 통한 홍수·가뭄 대비 및 워터프론트 개발 추진

○ 지역별 기능 특화를 통한 다핵연계형 발전거점 육성

- 부산대도시권(물류·국제비즈니스·금융), 울산대도시권(자동차·조선·에너지·화학), 진해만 환상도시권(로봇·기계·조선·해양플랜트), 내륙성장도시권(나노·의료·의생명), 사천만 환상도시권(항공우주소재산업), 서북부성장촉진권(녹색생명산업) 육성

2) 동남권 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년)

□ 계획의 목적

○ 지역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증적 산업 연계 계획 수립

○ 동남경제권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경쟁력이 확보된 계획 수립

○ 세계화·세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주도의 광역경제권 계획 수립

○ 기존 정책의 보완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특성화된 동남경제권 계획 수립

□ 계획의 범위

○ 부산광역시(16개 구·군), 울산광역시(4개구·군), 경상남도(20개시·군)

○ 시간적 범위 : 2009년~2013년(5년간)

□ 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환태평양 시대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

○ 목표

- 산업 및 관광의 융합기지화를 통한 신성장벨트 구축
- 환태평양 고부가 클러스터 형성 및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 지역적 특성을 제고한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
- 저탄소·녹색성장을 통한 살고 싶은 동남권 조성
- 초국경 경제권과의 네트워크 구축

□ 동남광역경제권 계획과제 도출

○ 선도산업 부문 : 수송기계산업 및 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선정

- 수송기계 : 그린카 오토벨트 구축사업,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 융합부품소재산업 :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수송기계 안전편의 부품·소재 허브구축사업

○ 시도별 전략산업부문

- 부산광역시 : 전략산업 중심의 신성장 동력발굴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해양,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영상·IT)
- 울산광역시 : 기술·환경 친화형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 경상남도 : 전략산업의 동북아 허브 구축을 통한 남해안 시대의 선도(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

○ 인력양성부문

- 선도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사업(융합부품-부산대·부경대, 수송기계-한국해양대)

○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동남권 성장동력 제고

○ 발전거점부문

-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중심지 구축으로 산업·물류 및 관광 신성장 벨트 구축

○ 교통·물류부문

-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프로젝트 : 동북아 제2허브공항, 경전철 복선전철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산외곽순환도로, 마산-거제 연육교

○ 문화·관광부문

- 동남권 해양관광벨트 구축 등 해양,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연계벨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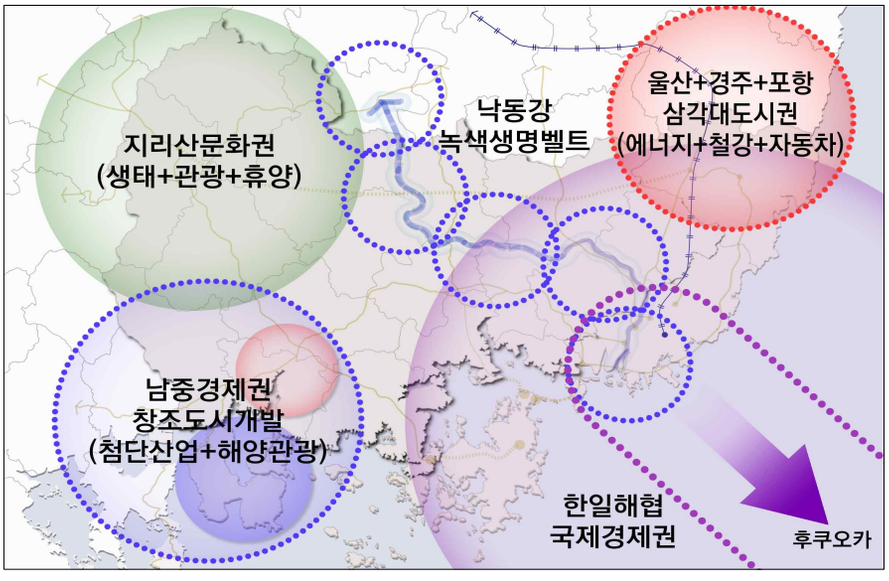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

- 호남권, 대경권, 일본(큐슈권)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간 상생발전 도모

□ 공간 배치 구상

○ 6대 지역경제권 + 3대 광역발전축

- 6대 지역경제권 : 부산대도시권, 울산대도시권, 서북부 성장촉진권, 내륙성장도시권, 사천만 환상도시권, 진해만 환상도시권
- 3대 광역발전축 : 내륙발전축, 해양발전축, 낙동강발전축



<그림 1-2-16> 초광역개발권 연계발전구상

□ 거창 관련 발전방향

○ 거창이 속한 산업 발전축은 내륙발전축이며, 초광역개발권은 지리산문화권역임

○ 시도별 전략산업은 지식기반 기계, 로봇, 지능형홈, 바이오산업임

- 전략 산업의 동북아 허브구축을 통해 남해안 시대를 선도

○ 3대 축, 6대 거점, U자형 관광자원 연계벨트 구축

- 동남권내 해양과 산악, 하천 등 생태를 중심으로 한 이들 3개의 축을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생태관광상품화로 연결함으로써 생태의 보전과 함께 부가가치의 창출도 일궈낼 수 있도록 함

- 생태보전 및 복원사업 추진 및 생태관 건립 등을 통한 녹색생태관광자원화 사업 및 선문화체험, 명인·품 투어 관광상품 개발 등의 동남권 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구축 사업이 내륙발전축에 해당하는 사업임

○ 교통물류망 확충방향

- 30대 선도 프로젝트 (5개 사업)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내용 포함

3) 거창군 종합계획(2001-2020)

□ 이념 및 목표

○ 이념 : 산향정서(山鄕精緖)가 넘치는 환경·문화·교육·자치의 도시 거창

○ 목표

- 창조성, 지성,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삶의 터전 조성
- 풍부한 시민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활발한 산업 육성
- 물(水), 녹음(綠陰), 빛(光)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 창출
- 신선한 매력과 꿈이 넘치는 지역기반 확충
-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환경 구성

□ 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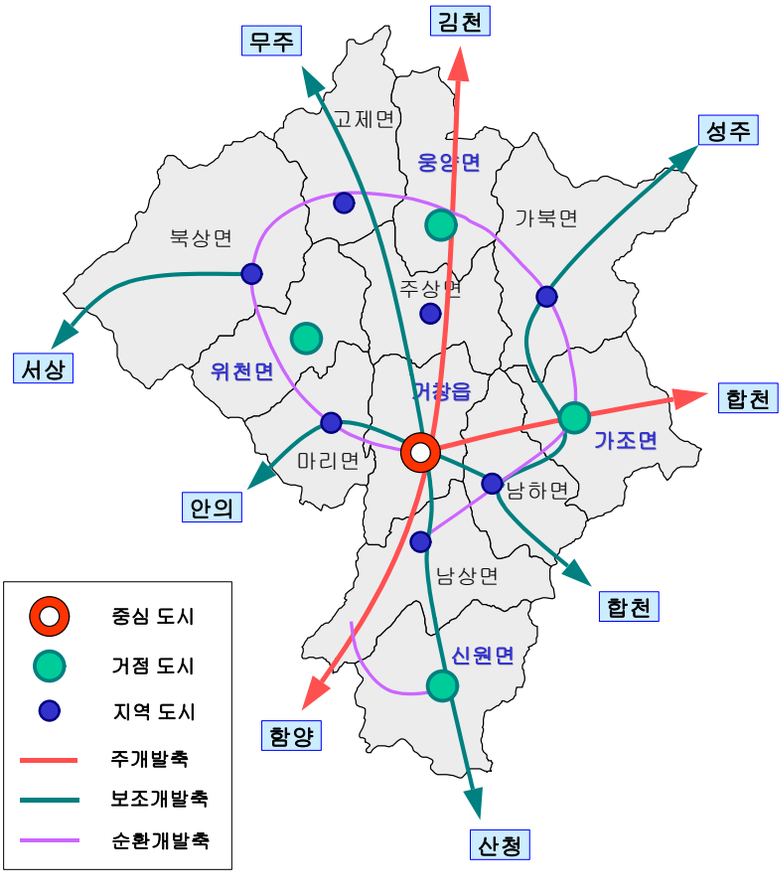
기 본 목 표	발 전 방 향
• 창조성, 지성,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삶의 터전 조성	· 학교, 사회 교육의 충실 및 여건 개선 ·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인권 존중 · 다양한 스포츠·레크리에이션 및 문화행사의 개최 · 타 지역과의 교류 증대 · 군민문화의 고양 · 커뮤니티 형성 추구
• 풍부한 시민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활발한 산업 육성	· 농업·축산업의 진흥 · 상업·공업·서비스업의 진흥 · 관광의 진흥 · 고용촉진과 근로자 복지의 충실 · 소비생활의 안정
• 물(水), 녹음(綠陰), 빛(光)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 창출	· 유수(流水), 농업용수(農業用水), 공업용수(工業用水), 식수(食水)의 확보와 정화 · 수변환경(水邊環境) 및 경관(景觀)의 조성 · 공원·녹지의 정비 ·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신선한 매력과 꿈이 넘치는 지역기반 확충	· 계획적 토지이용의 추진 · 종합교통체계의 정비 · 고도정보화 추진 · 주택 정비 및 상·하수도 정비 · 환경위생대책의 추진 및 공해 방지 · 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
•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좋은 환경 구성	· 지역방재대책 수립 · 교통안전대책의 확립 · 방범체제의 충실 · 지역보건·의료체제의 충실 · 고령자·장애자를 위한 대책의 확립 · Silver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공간구상

○ 개발축

– 주개발축은 동서, 남북방향으로 계획하며, 보조개발축은 지역거점지를 중심으로 개발망을 형성

– 순환개발축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거창군 내 거점도시 및 지역도시 간 횡적 이동성을 향상시켜 군 전체적으로 원활하고 고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함



<그림 1-2-17> 거창군 개발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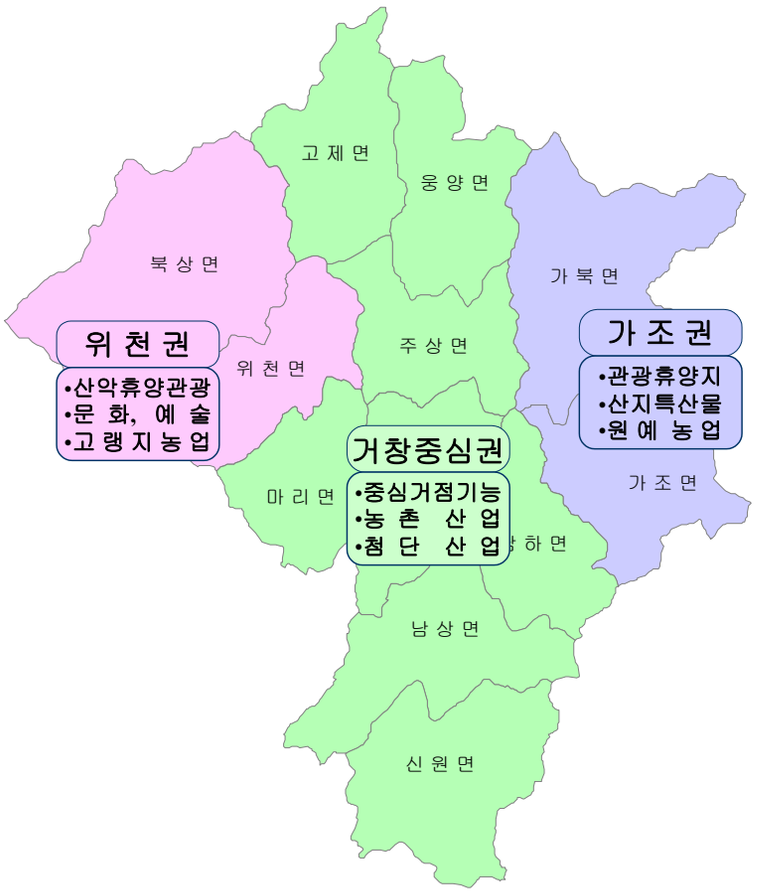
○ 교통축

– 거창중심권은 거창읍을 거창군의 도로구성은 종적 체계로 이루어져 면, 리간 지역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순환도로 개설을 통해 횡적 접근 체계를 구성을 통해 교통소통 원활히 하여 지역개발 촉진

- 지역간 간선도로의 원활한 연계체제 확립 및 무주와 거창, 합천, 산청, 함양의 관광지와 관광벨트화를 위하여 시가지 순환도로 및 거창-무주간 터널 개설

○ 계획권역

- 거창중심권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군 전체의 지원시설에 대한 결절지(Nodal Point)로서 타 권역에 지원기능을 수행하며, 중심지 및 거점도시의 역할을 담당함
- 동부권은 가조면의 온천 및 여타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관광휴양지로 개발함
- 서부권은 위천면을 중심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한 농업생산 및 자연휴양지로 개발함



<그림 1-2-18> 거창군 계획권역

<표 1-2-13> 거창군 계획권역별 발전방향

권 역	해당지역	거점지	권역성격	담당 기능	
거창 중심 생활권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신원면	거창읍	중심거점	거창읍	· 지원기능 · 교통, 교육, 행정, 상업중심
				마리면	· 전원주거 · 배후지원기능
				남상면	· 첨단산업 · 근교 농업 · 배후지원기능
				남하면	· 수변·휴양·레저 · 배후지원기능
			농촌산업	웅양면	· 고랭지농업·과수 원예농업
				고제면	· 고랭지농업 · 산악형 스포츠
				주상면	· 과수, 원예농업 · 농산물 유통
			전원휴양	신원면	· 축산업 · 역사교육
서부권	위천면, 북상면	위천면	농촌휴양	위천면	· 휴양, 관광 · 문화 예술 · 채석 생산 및 가공
				북상면	· 산악 휴양지 · 고랭지 농업
동부권	가조면, 가북면	가조면	관광휴양	가조면	· 휴양·관광 · 원예농업
				가북면	· 산지형 특산물

4) 거창군 기초생활권 수정발전계획(2011. 6)

□ 비전과 발전방향

○ 비전 : 풍요로움과 창의성이 넘치는 행복도시

○ 발전방향

- 지속가능·여유로운 삶이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 경관·자연·문화·역사가 결합된 아름다운 친환경 도시

□ 발전전략

○ 지역 자원의 창의적 발굴과 특화산업화

– 마을 향토 기업 육성 및 지역특산물, 친환경 농산물 생산판매를 통한 주민 소득기반 마련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우량 중소기업 유치와 대표 향토산업 특화 및 ㅊ최첨단 고부가가치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청정한 자연 환경을 이용한 녹색휴양지 조성 및 경관작물 군락지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산업개발

○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 시민의 삶의질 향상 및 양질의 교육·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건강한 학교 도시 조성을 위한 학교군 공원화 사업

– 사람 중심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걷고 싶은 거리, 문화가 있는 거리 조성

– 주민들의 창조성을 수용하는 공동체 조성 및 주민참여 문화 조성

○ 맑고 청정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

–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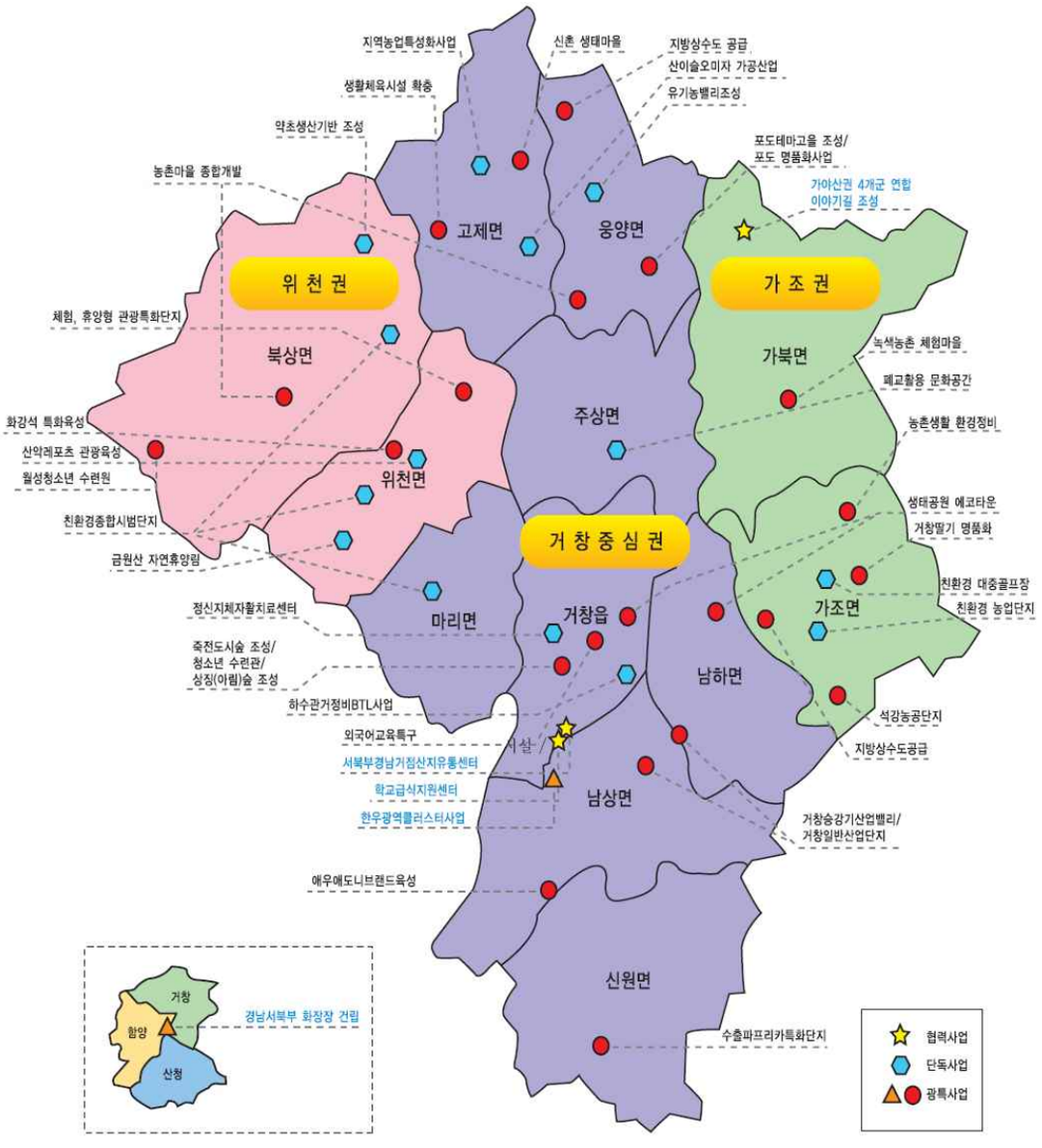
– 공공건물 녹화, 도시 공원 조성 및 수변 공간 자전거 길 확충

○ 찾아오는 녹색 휴양도시 조성

– 권역별 관광 자원 개발 및 서북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

– 농촌 체험마을 육성 및 체험 스토리 발굴

□ 종합구상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신촌 생태마을
지방상수도 공급
산이슬오미자 가공산업
유기농밸리조성
생활체육시설 확충
약초생산기반 조성
농촌마을 종합개발
포도테마고을 조성/
포도 명품화사업
가야산권 4개군 연합
이야기길 조성
고제면
웅양면
위 천 권
가 조 권
체험, 휴양형 관광특화단지
북상면
가북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폐교활용 문화공간
주상면
화강석 특화육성
농촌생활 환경정비
산악레포츠 관광육성
위천면
월성청소년 수련원
생태공원 에코타운
거창딸기 명품화
친환경종합시범단지
거 창 중 심 권
금원산 자연휴양림
친환경 대중골프장
친환경 농업단지
가조면
정신지체자활치료센터
마리면
거창읍
죽전도시숲 조성/
청소년 수련관/
상징(아림)숲 조성
남하면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석강농공단지
외국어교육특구
거창
지방상수도공급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남상면
한우광역클러스터사업
거창승강기산업밸리/
거창일반산업단지
애우애도니브랜드육성
신원면
거창
함양
산청
경남서북부 화장장 건립
수출파프리카특화단지
협력사업
단독사업
광특사업

4. 지역 수요조사

1) 조사개요

□ 조사목적

○ 거창군 장기발전계획을 지역의 구성원의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참여적 계획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핵심주체인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임

○ 설문조사를 통해 거창군 장기발전의 비전 및 목표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의 각 부문별 문제인식 및 장기발전의 핵심과제 도출에 관한 주민과 공무원의 수요를 파악

□ 조사일시

○ 2012년 7월 20일~7월 31일

□ 표본추출방식

○ 주민조사

– 12개 읍·면별 인구 모집단의 0.5% 범위에서 약 326명을 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층화비례할당방식으로 표본 배분

○ 공무원조사

– 본청 및 읍면사무소 공무원을 대상으로 20% 범위에서 부서별, 직급별 약 120명을 단순무작위로 표본 할당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거창군 및 읍면의 협조를 받아 주민 1,200부, 공무원 200부를 배포한 결과 주민 326부(76.3%), 공무원 121부(93.5%)를 회수

□ 조사대상의 일반현황

○ 주민

– 조사에 응답한 주민 915명의 주거지 분포는 거창읍이 34%로 1/3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면은 2~8%의 범위에서 인구비례로 분포

– 연령은 40대가 24%로 가장 많고 30대 22%, 50대 21%, 20대 18%의 순임

○ 공무원

- 조사에 응답한 공무원 187명의 주거지를 보면 전체의 79%가 거창읍에 거주하며 여타 지역에는 읍면 공무원들로 1~4%의 범위에서 분포
- 근무부서를 보면 본청 61%, 사업소 15%, 읍면 24%로 분포
-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54%로 가장 많고 농업직, 시설직이 각 8%이며 나머지는 1~7% 범위에서 분포
- 직급별로는 7급 39%, 6급 37%, 8급 13%, 9급 10%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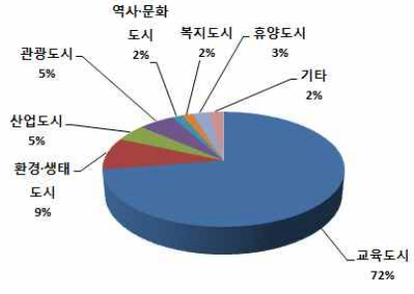
2) 조사결과

(1) 주민

□ 거창군 비전 및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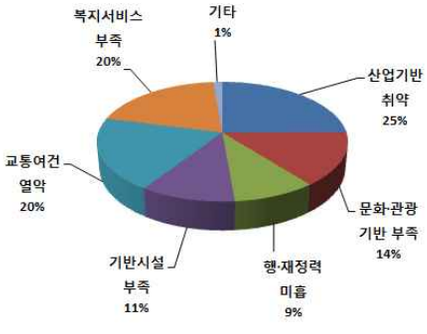
○ 거창군의 이미지

- 거창군의 대표 이미지에 대해서 72%의 압도적 다수가 교육도시를 꼽고 있음
- 다음으로는 환경·생태도시(9%), 산업도시(5%), 관광도시(5%) 등이 주민이 인식하는 주요 지역이미지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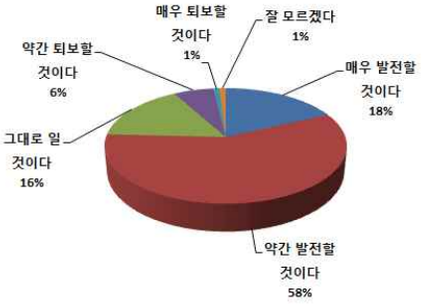
○ 거창군의 발전 저해 요소

- 거창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산업기반 취약」이 25%로 가장 높고, 「복지서비스 부족」과 「교통여건 열악」이 20%로 다음을 차지
- 「기반시설 부족」(11%)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주력산업의 인프라 부족이 발전의 가장 큰 저해요소라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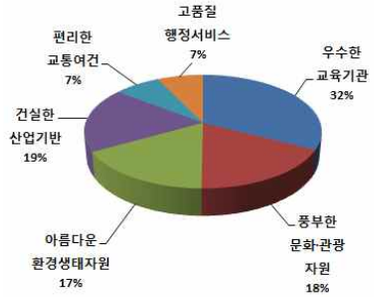
○ 거창군의 발전 전망

- 향후 10년 이내 거창군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발전할 것이다」 58%, 「매우 발전할 것이다」 18%로 전체의 76%가 긍정적으로 전망
- 반면 지역발전이 퇴보할 것으로 보는 부정적 전망은 7%로 불과함



○ 거창군 발전의 중요 요소

- 지역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32%가 「우수한교육기관」, 19%가 「건실한 산업기반」으로 교육과 산업경제에 대한 높은 기대를 반영
- 그밖에 「풍부한 문화·관광자원」 18%, 「아름다운 환경생태자원」 7% 등 관광에 대한 가치도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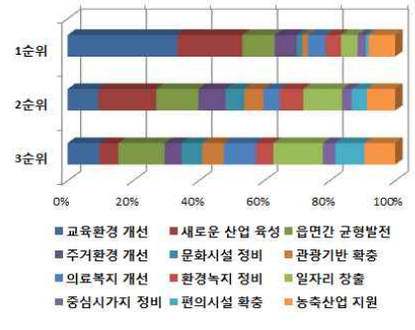


○ 거창군의 미래상

- 거창군의 미래상으로는 교육도시 35%, 생태환경도시 18%, 녹색산업도시 17%, 관광휴양도시 13%의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지역 이미지와 일치하는 일관성있는 미래상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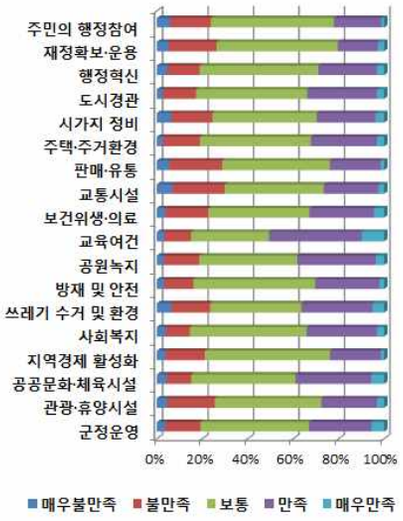
○ 거창군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 거창군 발전을 위한 역점 추진과제의 1순위로는 교육 환경개선(33%), 새로운 산업 육성(20%), 읍면간 균형발전(10%) 등을 우선적으로 꼽음
- 2순위로는 새로운 산업 육성(18%), 읍면간 균형발전(13%), 일자리 창출(9%) 등이 제시
- 대체로 경제, 교육 분야에 높은 정책적 관심을 표명



○ 거창군의 분야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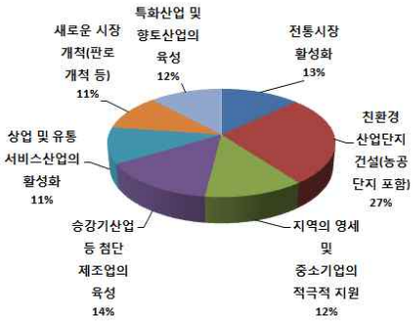
- 거창군의 분야별 만족도 평가에서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는 교육여건, 공공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등을 꼽고 있음
- 반면 만족도가 낮은 분야로는 관광·휴양시설, 교통시설, 판매·유통, 시가지정비, 재정확보·운용 등으로 나타남
- 특히 거창군은 산업경제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경제 활성화가 필요



□ 거창군 장기발전계획 부문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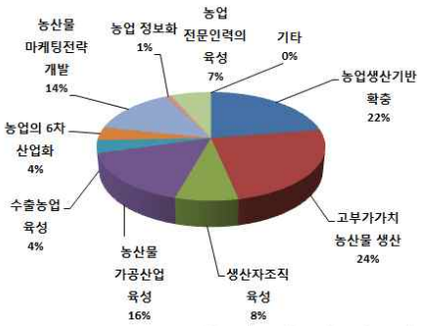
○ 산업경제(제조업, 서비스업) 활성화

- 산업경제(제조업,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27%가 「친환경 산업단지 건설(농공단지 포함)」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과제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승강기산업 등 첨단 제조업의 육성」 14%, 「지역의 영세 및 중소기업의 적극적 지원」 12%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나타남
- 거창군 산업경제 여건에 대해서 도로망 등 교통시설여건 등의 분야에서는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앙정부지원, 기술·경영 관련정보 구득지원 등에 대한 지원은 만족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농업분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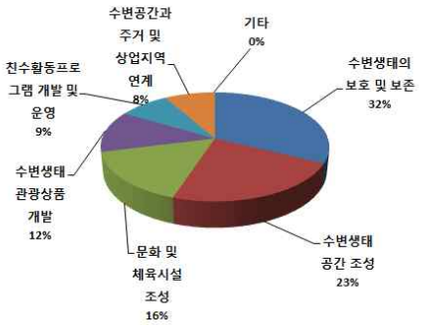
–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산물 마케팅전략 개발」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 나타남



– 농업 분야의 여건에 대한 평가에서는 「농산물 선별, 포장 등 전처리 시설」에 대한 만족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는 만족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수변생태공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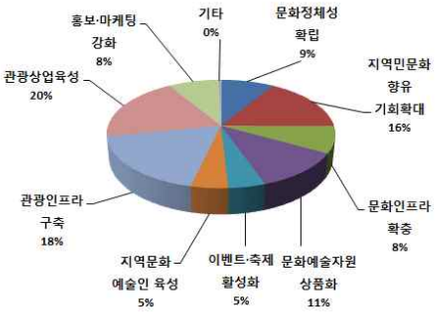
– 거창군 수변생태공간을 활용하는 것에 관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하천 등 수변생태의 보호 및 보존」이 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주민을 위한 수변생태 공간 조성」, 「지역 고유의 특성(교육도시 등)을 고려한 문화 및 체육시설 조성」, 「수변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을 중요 시책으로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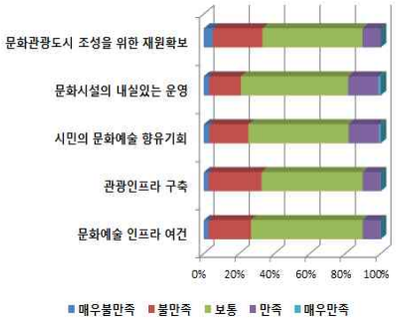
– 수변·생태 환경 여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보면 이용 가능한 문화·체육시설의 양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유적지 수변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문화·관광 활성화

– 문화·관광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시책으로는 20%가 「관광산업육성」을 꼽고 있으며, 그밖에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민문화향유 기회확대」 등도 중요 시책으로 제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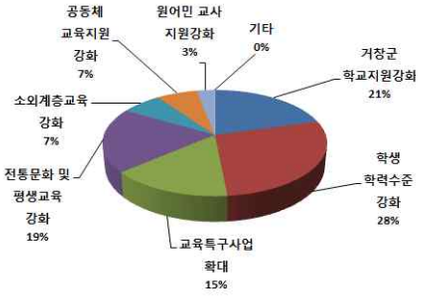


– 문화·관광 여건에 대한 만족수준을 보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문화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은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반면, 「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확보」, 「관광인프라 구축」은 가장 불만족스러운 항목으로 나타남



○ 교육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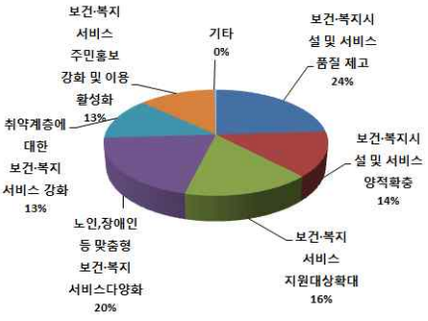
–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 내 학생의 학력수준 강화」, 「거창군의 학교지원강화」, 「전통문화 및 평생교육 강화」, 「영어마을 등 교육특구사업 확대」 등의 시책을 꼽고 있음



– 교육환경 및 여건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지역특화 교육환경, 평생교육의 기회 등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반면, 학부모 네트워크 등 공동체 교육지원 여건,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교육 여건 등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해 교육여건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

– 거창군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역점 추진 시책으로는 24%가 「보건·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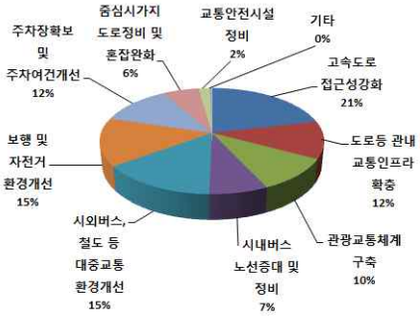
–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보건·복지서비스의 다양성」, 「보건·복지시설·서비스의 접근성」 등은 다소 만족스럽지만,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보건·복지 서비스비용 및 질적수준」은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임

○ 생활 편의와 도시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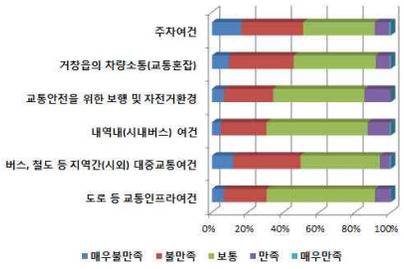
– 거창군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고려할 때, 읍과 면의 발전 방향은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 면 소재지 강화전략 필요」, 「경쟁력 확보와 공공시설의 규모경제성을 고려하여 읍 중심으로 발전」, 「읍과 면의 균형 있는 발전 추진」 등의 시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 교통여건 개선

– 거창군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21%가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및 주차여건 개선」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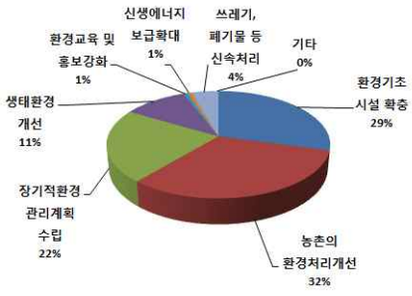


– 교통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 및 자전거 환경」 등은 다소 만족스럽지만, 「주차여건」, 「버스, 철도 등 지역간(시외) 대중교통 여건」, 「거창읍의 차량소통(교통혼잡)」은 만족도가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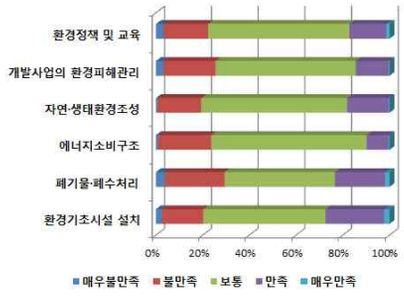


○ 환경관리 및 환경복지 실현

– 환경관리분야의 역점시책으로는 32%가 「폐비닐 등 농촌의 환경처리 개선」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 혹은 폐기물·폐수 처리 시설용량 확대」 29%,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22%의 순으로 꼽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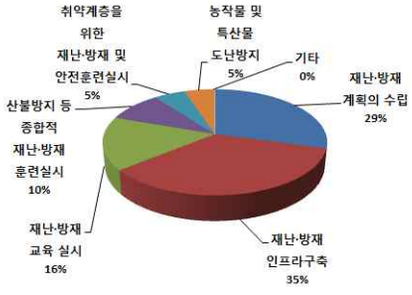


– 환경관리 여건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은 다소 만족스럽지만, 「폐기물·폐수 처리」,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피해 관리」는 만족도가 낮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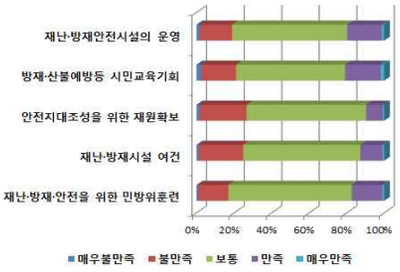


○ 재난·방재분야의 안전의 역점 사항

– 재난·방재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지역민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인프라구축」,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난·방재계획의 수립」, 「거창군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재난·방재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인식



- 재난·방재여건에 대해서는 안전지대조성을 위한 방재·산불예방 등 시민교육 기회는 비교적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지대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



(2)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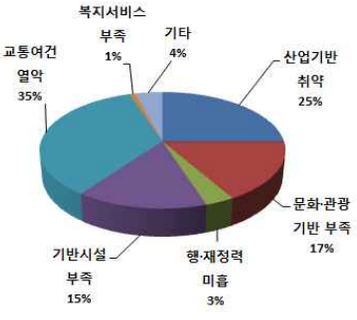
□ 거창군 비전 및 미래상

○ 거창군의 이미지

- 군의 대표적 이미지는 응답자 절반이 넘는 74%가 교육도시를 꼽고 있어 주민조사와 같은 결과를 보임
- 다음으로는 10%가 생태·환경도시, 4%가 관광도시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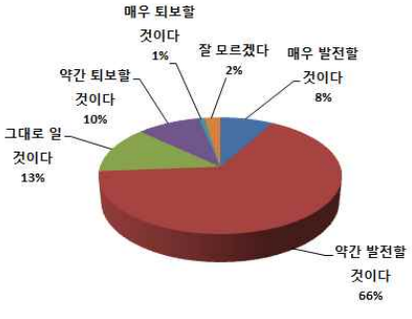
○ 거창군의 발전 저해 요소

- 거창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35%가 교통여건 열악을 꼽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산업기반 취약이 25%, 문화·관광 기반 부족이 17% 등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인프라 부족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



○ 거창군의 발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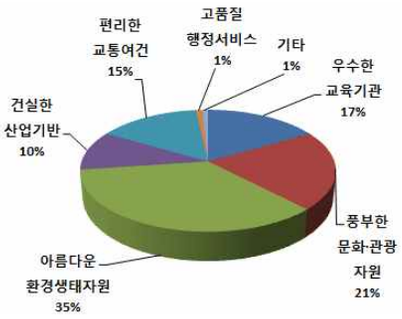
- 향후 거창군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발전할 것이다」 8%, 「약간 발전할 것이다」 66%로 절대 다수가 긍정적으로 예상
- 군의 구성원이 대체로 지역발전의 전망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줌



○ 거창군 발전의 중요 요소

– 거창군의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요소로는 35%가 「아름다운 환경생태자원」을 꼽고 있어 관광에 대해 거는 기대가 매우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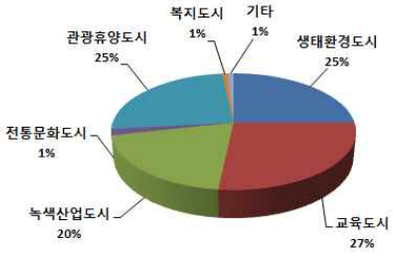
– 이밖에도 「풍부한 문화관광자원」과 「우수한 교육기관」도 또 다른 발전 요소로 인식



○ 거창군의 미래상

– 거창군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에 대해서는 교육도시 27%, 생태환경도시 25%, 관광휴양도시 25%, 녹색산업도시 2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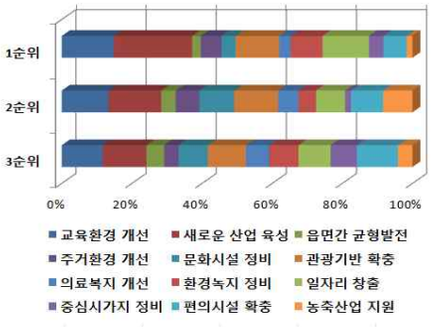
– 주민이 생각하는 거창군의 미래상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거창군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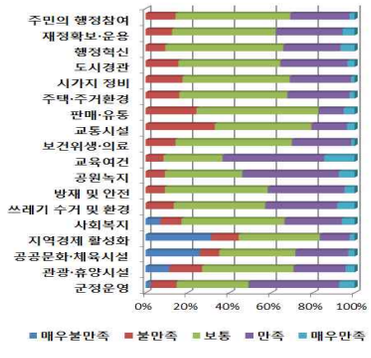
–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의 1순위로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 교육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3가지를 선택

– 2순위와 새로운 산업의 육성, 교육환경 개선, 관광기반 확충 등을 꼽고 있어 주민의 의견과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거창군의 분야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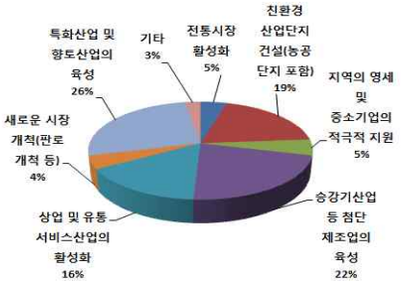
– 거창군의 분야별 현재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원 녹지, 군정운영 등이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 나타 났으며, 반면에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체육시설, 교통시설 등은 다소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 장기발전계획 부문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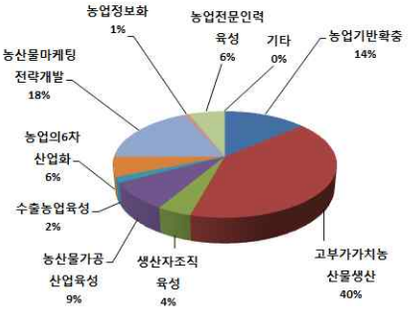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점사항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22%가 「승강기산업 등 첨단 제조업의 육성」을 꼽고 있으며 「친환경 산업단지건설(농공단지 포함)」과 「상업 및 유통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등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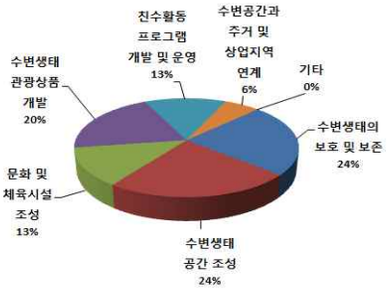
○ 농업 발전을 위한 역점사항

– 농업분야 발전을 위한 역점 추진사항으로는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농산물 마케팅전략 개발」, 「농업생산기반 확충」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할 시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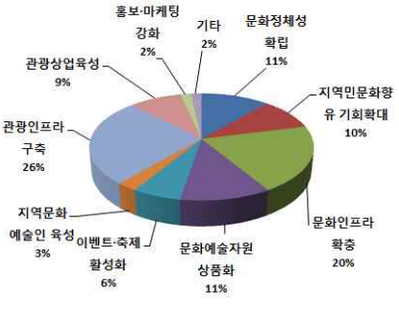
○ 수변생태공간 활용 역점사항

– 수변생태공간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수변생태공간 조성」, 「하천 등 수변생태의 보호 및 보존」이 각각 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변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도 2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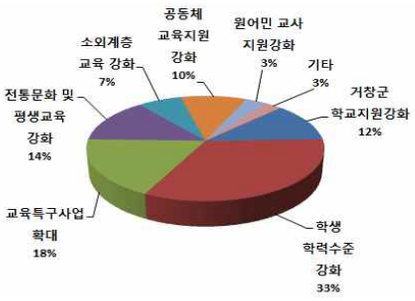
○ 문화관광 활성화의 역점 사항

–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26%가 「관광인프라 구축」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꼽고 있으며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정체성확립」, 「문화예술자원 상품화」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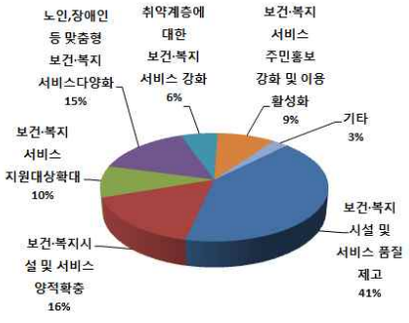
○ 교육경쟁력 강화의 역점 사항

– 인재 및 인력 개발을 위해서는 「지역 내 학생의 학력수준 강화」, 「영어마을 등 교육특구사업 확대」, 「전통문화 및 평생교육 강화」 등 다양한 시책수요를 제시



○ 보건·복지 서비스 향상의 역점 사항

– 복지·복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밖에 「보건·복지 시설 및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의 다양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대상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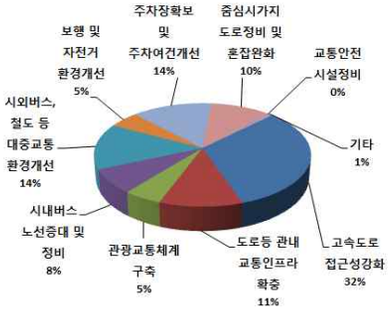


○ 생활 편의와 도시경쟁력 확보

– 거창군민의 생활 편의와 도시경쟁력 확보를 고려할 때, 읍과 면의 발전 방향은 「경쟁력 확보와 공공시설의 규모경제성을 고려하여 읍 중심으로 발전」, 「읍과 면의 균형있는 발전 추진」, 「면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고려, 면 소재지 강화전략 필요」 등의 시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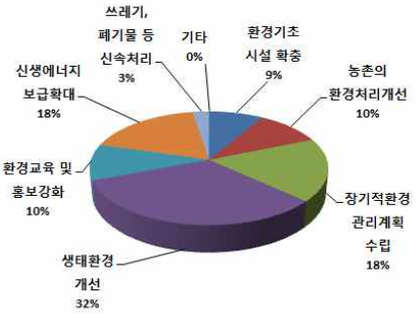
○ 교통여건 개선의 역점 사항

– 거창군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32%가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시외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및 주차여건 개선」 등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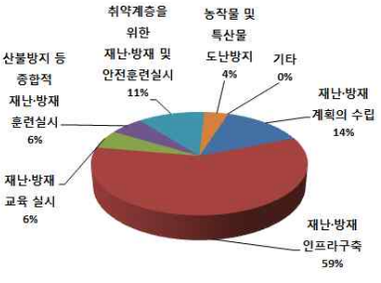
○ 환경관리 및 환경복지 실현의 역점 사항

– 거창군의 환경관리 및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32%가 「공원녹지면적 확대, 녹색길 조성 및 야생동물 보호 등 생태환경 개선」을 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및 환경영향평가 강화」 18% 순으로 중요시책을 꼽고 있음



○ 재난·방재분야의 안전의 역점 사항

– 재난·방재 분야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지역민 안전을 위한 재난·방재 인프라구축」, 「주민의견을 반영한 재난·방재계획의 수립」, 「거창군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재난·방재교육 실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



5. 발전 잠재력 분석 : SWOT

1) 환경분석

(1) 내부환경

□ 강점

○ 덕유산, 금원산, 감악산, 건계정 등 지역을 둘러싼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거창의 매력창출에 유리

- 가조 온천, 금원산 휴양림, 건계정 등의 유교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황강변의 수변생태자원을 보유

○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과 딸기 등 브랜드 가치가 높은 농특산물 보유

○ 서부경남의 핵심적인 지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중심지적인 입지적 특성을 보유

- 내륙발전축의 지리산-덕유산 거점지역의 중핵(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및 향토자산 보유

□ 약 점

○ 농업 위주의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환 산업구조

- 부가가치가 높은 2, 3차 산업 등 지역의 대표산업이 부족

○ 지역특산물의 상품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전략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이 부족

- 거창딸기, 거창사과 등 과수작물 뿐 아니라 건계정, 심소정, 금원산, 감악산, 둔마리 고분벽화, 가조온천 등에 대한 전략적 판촉과 마케팅 부족

○ 산업, 관광, 생태, 문화 자원 등의 상호 연계 및 융복합화가 미흡

- 지역의 인지도 향상 및 마케팅 제고의 토대가 되는 거창이 지니고 있는 산업, 관광, 생태, 문화자원의 연계 및 융복합화 전략의 미흡

○ 취약한 지역경제기반과 지방재정력으로 인하여 지역발전 투자여력이 한계

(2) 외부환경

□ 기 회

○ 내륙특화발전 지역을 적극 육성하려는 정부의 지원 의지 향상

- 내륙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으로 인해 거창이 포함된 내륙특화발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전망
- 새정부가 출범할 경우 그동안 소홀했던 내륙의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일본의 3.11 지진으로 인한 관광 및 산업의 한국이전 수요와 중국의 소득향상으로 인한 서울과 제주도 이외지역으로의 관광 수요가 증가

- 가조 온천, 덕유산, 금원산, 건계정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거창은 합천 해인사 등과 연계한 관광 시너지 발전의 잠재력이 증가

○ 국민의 소득증대, 주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국내 관광수요의 증가

- 소득 증가, 주5일 근무제 등에 따른 여행수요의 증가와 여행패턴의 변화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농산촌 지역에 대한 관광수요 증가

○ 함양–울산 고속도로 착공, 88고속도로 확장 등 정부의 도로계획이 확정되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

□ 위 협

○ 대진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거창을 미경유함에 따라 접근성에 불리하게 작용

- 대진고속도로의 함양 통과로 거창발전의 파이프 라인의 역할을 하는 접근성 개선이 지역발전의 관건

○ 대구, 진주에 인접하고 있어, 지역간 접근성이 향상될 경우 성장동력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

- 발전의 동력이 주변의 대도시로 흡수·유출되는 “빨대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서부 경남의 주변지역인 창원–마산–진해의 행정구역 통합에 자극을 받아, 진주–사천–하동–남해 등의 통합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이들 지역이 대도시로 성장할 경우 발전의 블랙홀로 작용할 우려

- 인근에 발전의 집적효과(集積効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거대 성장극이 형성되어 거창의 발전을 위협할 가능성 보유

○ 거창이 국가의 거시적 지역발전 프로젝트 구상에서 사각지대로 잔존

- 남해안 선벨트 발전계획, 동남해안 발전계획 등 국가의 주요 지역발전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발전이 지체될 가능성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발전의 활력 저하

- 경남의 다른 군에 비해서는 사정이 양호한 편이지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발전의 활력 저하 및 복지부담의 증가

2) 전략모드별 계획과제

□ S+O (적극적 공세전략) : 강점을 살려 기회를 극대화

○ 내륙 관광거점기능 및 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 노인, 은퇴자, 귀촌귀농자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가족단위 체류·체험관광 활성화

○ 고품격 디자인 거리, 문학도시 등 창조적 환경 조성

○ 수변경관 개발 등 삶의 질 향상과 매력도 창출

□ S+T (공세적 방어전략) : 강점을 활용, 위협을 상쇄·완화

○ 거창읍 도심 정비 등 중심지의 기능 강화

○ 일류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

○ 전통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

○ 농촌 삶의 질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

○ 인근 대도시의 배후거점기능 강화

□ W+O (수세적 공세전략) : 약점을 보완, 기회를 포착·활용

○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차세대 농촌형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

○ 지역자원의 전략적 장소마케팅 추진

○ 외부 및 민간의 관광투자유치 강화

○ 2, 3차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 W+T (적극적 방어전략) :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을 회피

○ 귀촌·귀농마을,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 인근 대도시 지역과 연계·협력 강화

○ 기초생활권 및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유치

○ 행정혁신 및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

내부환경 / 외부환경	강점(S)	약점(W)
	S1: 덕유산, 감악산 등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S2: 거창고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교육여건 S3: 딸기, 사과, 유기, 포도 등 지역자원의 브랜드화 S4: 가조온천, 유림의 정자문화, 둔마리 고분벽화, 황강 수변공간 등 관광투자여건 양호 S5: 창조도시의 인지도 향상, 서부경남의 핵심지역 성장의 입지여건 보유	W1: 1차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W2: 지역특산물의 상품화 및 전략적 마케팅 부족 W3: 산업, 관광, 생태, 문화자원의 연계 및 융복합화 미흡 W4: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발전의 역동성과 활력 저하 W5: 취약한 재정자립도 등 개발투자여력의 한계

		S + O	W + O
기회(O)	O1: 내륙특화발전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 O2: 소득증대, 주5일근무 등 국내 여건변화와 동북아 환경변화에 따른 신지역 관광수요 증대 O3: 거창에 대한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으로의 입지여건 개선 O4: Only One 특화전략에 의한 대외적 지역인지도 개선	• 내륙 관광거점기능 및 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 • 노인, 은퇴자, 귀촌귀농자의 전원주거단지 조성 • 가족단위 체류·체험관광 활성화 • 고품격 디자인 거리, 문학도시 등 창조적 환경 조성 • 수변경관 개발 등 삶의 질 향상과 매력도 창출	• 지역특산물의 융복합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차세대 농촌형 성장동력산업의 발굴·육성 • 지역자원의 전략적 장소마케팅 추진 • 외부 및 민간의 관광투자유치 강화 • 2, 3차 산업의 다양화, 고도화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S + T	W + T
위협(T)	T1: 대진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교통망과의 접근성 불리 T2: 대구, 진주, 김천에 인접하고 있어 성장동력의 외부 유출 우려 T3: 남해안 선벨트, 동남해안권 발전계획 등 국가의 지역발전정책의 사각지대 T4: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지역발전활력의 저하 및 복지부담 증가	• 거창읍 도심 정비 등 중심지의 기능 강화 • 일류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인재양성 지원 • 전통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관광자원화 • 농촌 삶의 질 제고로 정주여건 개선 • 인근 대도시의 배후거점기능 강화	• 귀촌·귀농마을, 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 인근 대도시 지역과 연계·협력 강화 • 기초생활권 및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유치 • 행정혁신 및 재정운영시스템의 개선

<그림 1-2-19> 거창군 발전 SWOT

Ⅲ. 거창군 장기발전 기본구상

1. 선행 분석의 검토

□ 지역현황분석의 시사점

○ 1지난 25년간 계속적인 인구유출로 30.8%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24.8%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인 인적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인구유입이 필요

○ 지역발전수준이 매우 낮고(기초자치단체 중 175위, 2008년 기준),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여 차세대 새로운 성장동력이 절실히 요구

○ 거창읍 중심의 공간구조로 여타 면지역의 지역발전 수준과 여력이 매우 취약

○ 특히 재정자립도 등 지방재정형편이 매우 취약하여 의욕적인 지역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 민자유치 등 투자재원 확보가 관건

□ 주민 수요조사의 시사점

○ 향후 지역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 기대를 갖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산업의 육성을 강조

○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기반과 인프라 등 기반시설의 취약한 여건을 꼽고 있음

○ 향후 주력해야 할 역점 시책으로는 신산업 육성, 교육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할 새로운 분야로서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

□ SWOT분석의 시사점

○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의 육성이 1차적인 전략임

○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착공예정) 및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완공(3년후) 등 인프라 구축이 예정되어 있어 내륙특화발전과 연계하여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생태, 문화, 휴양을 아우르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

○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인지도도 높은 교육분야를 신산업화하여 지역의 인적 역량 강화 및 정주기반 개선을 추진

○ 지역공동체 형성, 행재정 혁신, 투자재원 조달 등 부족한 내부 역량을 보강하는 전략이 보완되어야 함

□ 기존 브랜드 슬로건 검토

○ 거창군의 심벌마크는 거창의 특산물인 사과를 형상화하고 있으며 넓은 들과 맑은 물, 교통의 요충지를 표현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지향

○ 캐릭터는 "아림과 아름"으로 명명된 인물상으로 산자수려한 자연경관, 유서깊은 역사, 찬란한 전통문화를 상징

○ 군정운영의 비전은 "매력있는 창조 거창"으로서 지역의 부존자원을 발굴하여 신산업화하여 주민의 행복도를 높이고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창조도시를 지향

- 군민중심의 감동행정, 앞서가는 농촌경제, 으뜸가는 명품교육, 함께하는 생활복지, 여운있는 문화관광 등 5가지 목표를 제시
- 민선 5기에 들어서 군정 전반에 대한 비전을 나타내는 슬로건으로 정착

□ 2003년 거창군 장기발전계획 비전 검토

○ 지역발전의 비전을 "산향정서(山鄕精緖)가 넘치는 환경·문화·교육·자치의 도시"로 설정

- 산, 들, 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환경, 교육, 문화 등 핵심 지향가치를 제시
- 삶의 터전 조성, 산업육성, 자연환경 창출, 지역기반 확충, 건강한 환경 구성 등을 하위목표로 설정

○ 거창의 자연환경적 특성과 정책의 지향점을 표현하고 있으나 중장기 발전 비전으로서 미래지향적 목표와 의지가 미흡

2. 거창군 발전의 비전과 목표

1) 거창군 발전의 비전 설정

□ 장기발전의 비전 : “매력있는 창조도시 거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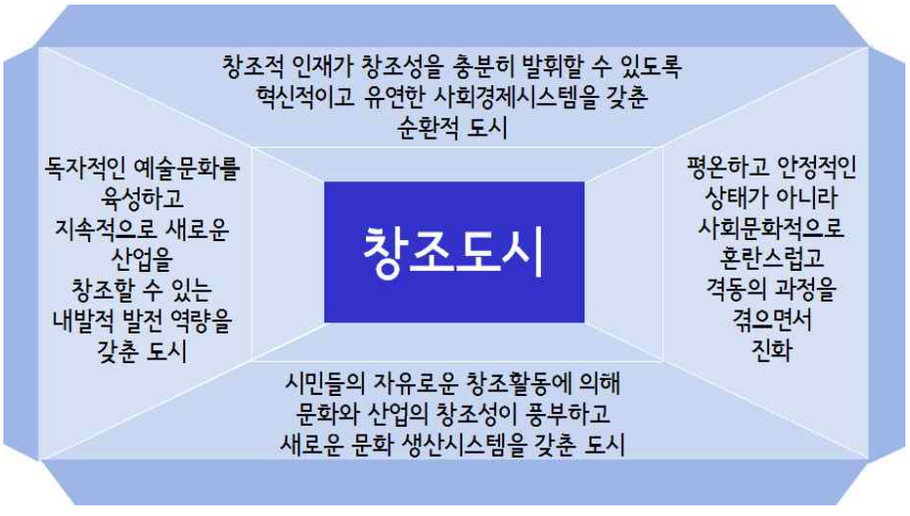
□ 비전의 의미

○ 지역의 매력도(attractiveness) 제고

- 지역의 잠재력과 가치는 지역주민, 방문객, 유입인구 및 산업 등 구성원 모두에게 얼마나 매력있는 장소로 평가받느냐에 달려 있음
- 지역의 매력도는 장소에 대한 평가자의 인식(place perception)에 의존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는 생산, 생활, 여가 등 삶의 질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의 충족에 달려있음
- 장소경쟁시대의 국내외 모든 도시와 지역들은 장소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을 추진

○ 창조도시(creative city) 지향

- 1990년대 후반부터 창조산업(creative industy), 창조경제(creative economy), 창조계층(creative class) 등의 개념이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경쟁적으로 창조도시로 재탄생하려는 노력을 경주
- 창조도시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정의가 내려져 있으나 대체로 창조역량이이 높을 뿐 아니라 창조성이 발현되어 내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역동적인 도시를 일컬음
- 초기의 창조도시는 대도시 또는 문화관광도시 등을 중심으로 등장하다가 최근에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까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확산하는 경향을 보임
- 거창군의 창조도시는 “도시이미지 제고형”으로서 아직은 창조역량이 미흡한 수준이지만 수려한 자연환경과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여건 등을 활용하여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 혁신(creative innovation)을 추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그림 1-3-1> 창조도시의 특징

2) 거창군 발전의 목표

□ 주민복지와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도시

○ 서부경남 및 남부내륙의 중심도시 건설을 통해 교통, 주택 등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주민의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풍요로운 삶의 질을 갖추도록 생활 및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역재편의 정주체계를 설정하고 지속가능성과 인간 중심의 창조역량이 넘쳐나고 지역의 매력이 풍부한 거창 건설을 추진

□ 고품격 자연친화적인 전원생태도시

○ 산, 강, 계곡, 온천, 전원 등 수려한 천혜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

○ 수변 및 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한 거창 경관 테마랜드 조성, 위천천 및 황강천변의 체계적 활용, 수변 레포츠 공원 조성 등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

□ 경쟁력이 있는 지역특화 산업도시

○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각종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가공 및 유통의 현대화와 2차, 3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실현

○ 최적의 투자환경 조성, 우량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현대화,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을 통해 거창의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육성

□ 명성높은 교육·문화·관광도시

○ 기존에 구축해 놓은 거창의 교육 경쟁력을 보다 향상시켜, 전국 제일의 특성화된 교육여건을 실현

○ 역사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하여 지역브랜드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이미지를 창출하는 장소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역특산물과 연계하여 남부내륙의 관광위락 중심지로 도약

□ 주민감동과 화합의 선진 지역 공동체

○ 군민 화합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만족형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고품격, 고수준의 주민복지를 구현

○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부심을 고양하며, 지역행정에 대한 군민의 감동, 애향심과 참여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3) 계획과제 도출

(1) 전략과제(중점이행사업, Mega-Projects)

○ 에코-에듀 파크(Eco-Edu Park) 조성

- 교육도시로서 아카데미 파크를 중심으로 거창읍의 각 공간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통합적 교육공간을 생활권 개념으로 조성

○ 거창 경관 테마랜드 조성

- 외래 관광객 유인과 주민 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및 남하면 무릉리 일원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친환경 볼거리를 조성하고 소득원을 발굴

○ 위천천 및 황강천변 활용

- 위천천 및 황강천변 수변공간의 친환경적 개발 모델 구축

○ 수변 레포츠 공원 조성

– 남하면 합천댐 상류 수몰유역 내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 테마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인 수상스키 경기장 등 수변 레포츠시설 조성

○ 공예문화 클러스터 조성

– 경쟁력과 실용성을 갖춘 방짜유기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연관된 공예문화상품을 육성하는 클러스터를 조성

○ Route C 216 프로젝트

– 거창군 김천리 216번지 일대에 동남권의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를 조성

○ 정자문화 거창 풍류촌 조성

–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의 관광거점화를 위해 정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

○ 한국형 에너지 자립 에코 시티(Eco-City) 육성

– 저탄소 녹색성장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창군의 청정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에코시티(Eco-City)' 조성

○ 88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관광교통체계 확립

– 88고속도로의 4차로 확장 공사 완공에 대비, 대구권 및 광주권, 대전권 인구를 대상으로 한 관광객 유인 방안과 지역상권 피해보호대책 수립

(2) 부문과제

○ 공간구조 및 정주생활권 : 경쟁력과 균형발전의 도시 거창

– 공간구조의 현황분석, 생활권 분석, 토지이용 특성 분석, 공간구조 개편의 정책대안 및 추진전략

○ 산업 : 향토산업과 신산업이 성장하는 경제도시 거창

– 산업현황분석 및 문제점 도출, 식품산업 육성방안, 기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서비스업 부가가치 제고방안, 신산업 발굴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정책대안 및 추진전략

○ 문화·관광 : 머물고 싶은 풍류 거창

– 문화 및 관광의 현황 및 문제점, 전통 문화역사의 보전 및 함양,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 육성 등에 대한 정책대안 및 추진전략

○ 교육·복지 : 주민공동체가 책임지는 통합복지와 교육도시 거창

– 사회복지 현황 및 문제점, 복지시스템 개선, 노약자 복지 등 복지분야와 교육 경쟁력 강화, 우수인재양성, 평생교육 등 교육증진분야에 대한 정책대안 및 추진전략

○ 농업 : 고부가가치의 거창한 신(新)농업 육성

–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특산품 육성 및 마케팅, 농업기반 구축 등에 대한 추진전략

○ 환경·생태 : 지속가능한 환경·생태도시 거창

– 환경생태분야 현황 및 문제점, 수변공간 개발, 수자원 보전과 이용, 숲자원 보전·활용, 새로운 생태자원개발 등에 대한 정책대안 및 추진전략

○ 도시기반 : 편리하고 쾌적한 정주기반 거창

– 도시기반 현황 및 문제점,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재정비 및 확충방안 및 추진전략

○ 방재·안전 : 선진 자율 방재 도시 거창

– 지역방재시스템 효율화, 선진기술 도입 및 주민참여 촉진 방안

(3) 지원과제

○ 행정계획

– 거창군의 행정현황 및 문제점 검토, 행정체계 개선방안, 행정통합 대응, 행정기구 및 인력계획, 행정제도 개선방안

○ 재정계획

– 재정현황 및 문제점 분석, 재정전망 및 수요예측, 재원확보 방안 개발, 예산, 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및 추진전략

○ 투자계획

– 개발투자의 현황 및 문제점, 투자수요 전망, 개발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추진사업의 결정 및 사업별 투자계획 수립

<그림 1-3-2> 거창 발전의 비전과 목표

Ⅳ. 거창군 미래 발전의 지표 설정

1. 인구지표

1) 인구추이

○ 거창군 인구는 인구센서스가 실시된 1960년 125,280명으로 그 이후 197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다 도시화가 진전되기 시작한 70년대 중반부터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

- 1975년 123,889명이었던 인구가 2000년에는 65,963명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
-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구감소세가 둔화되어 2000년 65,963명의 인구가 2011년에는 63,136명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 후반에는 거의 정체상태를 유지

○ 성별 구성은 60년대 중반 까지는 남성이 많았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여성 인구가 우세를 보임

○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가구수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계속 증가하여 1960년 가구당 인구가 5.6명에서 현재는 2.3명으로 크게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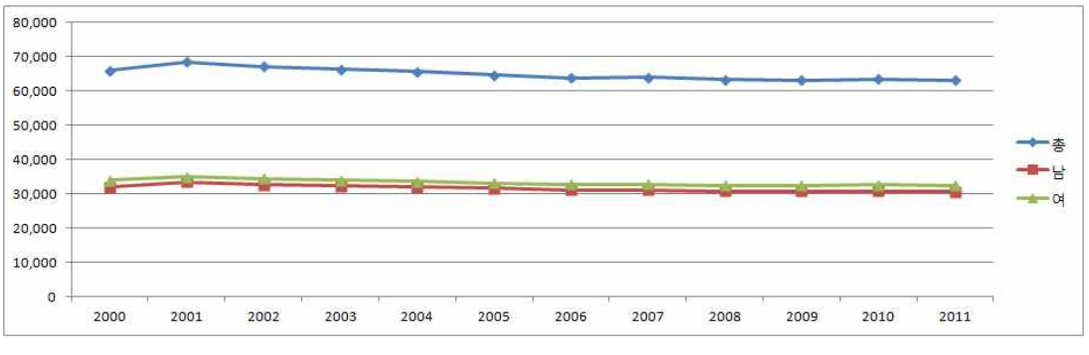
○ 거창군 인구가 전국 및 경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최근 2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 1992년 전국 대비 0.17%. 경남 대비 2.02%의 비율이 2011년에는 각각 0.12, 1.91로 감소

<표 1-4-1> 거창군 인구변화 추이

연도	가구(세대)	인구(명)			가구당인구(명)	인구증가율(%)
		총	남	여		
1960	22,269	125,280	63,210	62,070	5.6	
1966	23,811	136,673	69,235	67,438	5.7	9.09
1970	22,588	123,357	60,699	62,658	5.5	-9.74
1975	22,309	123,889	63,197	60,692	5.6	0.43
1980	21,151	102,355	51,197	51,158	4.8	-17.38
1985	21,239	91,553	45,951	45,602	4.3	-10.55
1990	21,568	77,580	38,328	39,252	3.6	-15.26
1995	22,671	70,096	34,349	35,747	3.1	-9.65
2000	23,528	65,963	31,924	34,039	2.8	-5.90
2001	24,424	68,574	33,524	35,050	2.8	3.96
2002	24,333	67,224	32,702	34,522	2.8	-1.97
2003	24,664	66,370	32,355	34,015	2.7	-1.27
2004	25,031	65,615	31,952	33,663	2.6	-1.14
2005	25,406	64,735	31,568	33,167	2.5	-1.34
2006	25,563	63,917	31,188	32,729	2.5	-1.26
2007	25,909	63,979	31,136	32,843	2.5	0.10
2008	25,994	63,268	30,791	32,477	2.4	-1.11
2009	26,362	63,180	30,733	32,447	2.4	-0.14
2010	26,983	63,421	30,843	32,578	2.4	0.38
2011	26,993	63,146	30,665	32,481	2.3	-0.43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및 주민등록인구



<그림 1-4-1> 거창군 성별 인구 추이

<표 1-4-2> 거창군 인구의 전국 및 경남 대비 비율

연도	인구(%)			가구(%)		
	전국	경상남도	거창군(명)	전국	경상남도	거창군(가구)
1992	0.17	2.02	77,705	0.17	2.01	22,156
1993	0.17	1.96	76,454	0.17	1.99	22,610
1994	0.17	1.89	74,999	0.17	1.95	22,782
1995	0.16	1.87	73,810	0.16	1.96	23,123
1996	0.16	1.82	73,078	0.16	1.92	23,423
1997	0.15	2.37	72,237	0.16	2.49	23,565
1998	0.15	2.35	72,096	0.16	2.48	23,955
1999	0.15	2.30	70,989	0.16	2.46	24,082
2000	0.15	2.25	69,744	0.15	2.43	24,299
2001	0.14	2.21	68,574	0.15	2.40	24,424
2002	0.14	2.15	67,224	0.15	2.33	24,333
2003	0.14	2.11	66,370	0.15	2.30	24,664
2004	0.14	2.09	65,615	0.14	2.28	25,031
2005	0.13	2.05	64,735	0.14	2.25	25,406
2006	0.13	2.01	63,917	0.14	2.22	25,563
2007	0.13	2.00	63,979	0.14	2.20	25,909
2008	0.13	1.96	63,268	0.14	2.16	25,994
2009	0.13	1.94	63,180	0.14	2.14	26,362
2010	0.13	1.93	63,421	0.14	2.13	26,983
2011	0.12	1.91	63,146	0.13	2.10	26,993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2) 계획인구추계

□ 추정식의 선택

○ 인구 추정식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투입평가법(Input Evaluation Method)과 결과평가법(Output Evaluation Method)를 사용하여 추정식을 평가

– 투입평가법에 의한 실제 인구성장특성과 추정인구 특성 비교

$$s = \left[\frac{\sum_t (Z_t - \overline{Z})^2}{M-1} \right]^{\frac{1}{2}}$$

$$CRV = \frac{s}{|\overline{Z}|} \times 100$$

s: 표준편차, Z_t: 투입값, $\overline{Z}$: 투입값의 산술평균, M: 투입값의 개수

– 결과평가법에 의한 관찰된 자료와 추정식 결과와의 차이 평가

$$MAPE = \frac{\sum_t \frac{|P_t - P_t^e|}{P_t}}{n} \times 100$$

P_t: 실제인구, P_t^e: 추정인구, n : 추계기간,

○ 추정식의 선택은 CRV와 MAPE가 동일하게 최소가 되는 식을 선택

– 투입평가법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Linear curve model과 결과평가법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는 Logistic curve model을 제외하고, Parabolalic curve model이 가장 선호되는 모형으로 나타남

<표 1-4-3> 추정식의 평가

추정식	상대분산계수(CRV)	평균오차백분율(MAPE)
Linear curve model	7.52792	1.426033
Exponential curve model	−2.90412	0.179029
Parabolalic curve model	−2441.86	0.045645
Modified exponential curve model	−7.02058	0.185234
Gompertz curve model	−7.06272	5.063840
Logistic curve model	−59.6709	5.908805

□ 목표인구 추정결과

○ 인구감소세가 둔화되어 안정적 추이를 보이기 시작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의 인구를 기초자료로 향후 10년간의 인구를 추정

○ 목표연도인 2022년 인구는 추정식에 따라 최소 32,857명에서 최대 73,493명으로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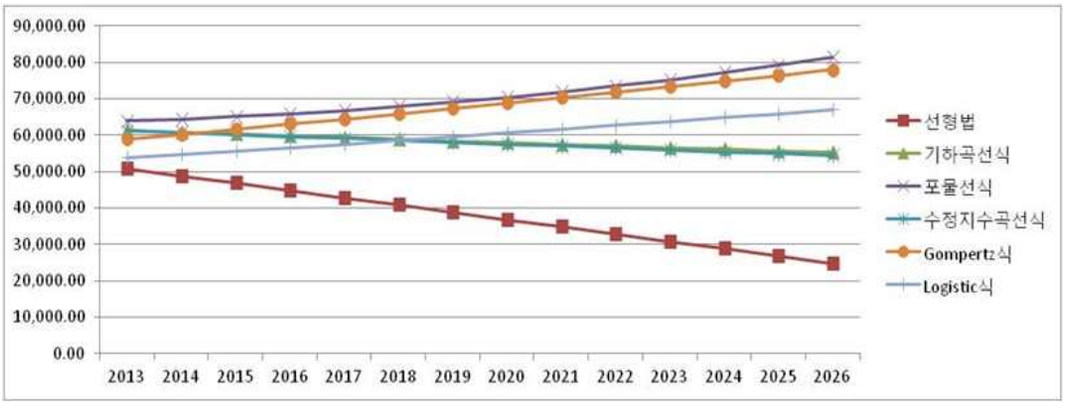
<표 1-4-4> 추정결과

추정모형		추정결과
Linear curve model	$P_t = a + bt$	$P_t = 64,857 - 521.56t$
Exponential curve model	$P_t = ae^{bt}$	$P_t = 64,833.5*0.99205^t$
Parabolalic curve model	$P_t = a + bt + ct^2$	$P_t = 64,166.9 - 521.5t + 64,166.9t^2$
Modified exponential curve model	$P_t = c + ab^t$	$P_t = 1000000 + 935,141.1*1.000558^t$
Gompertz curve model	$P_t = ca^{b^t}$	$P_t = 1000000*0.005^{0.992^t}$
Logistic curve model	$P_t = (c + ab^t)^{-1}$	$P_t = (0.0000001 + 0.00002*0.982^t)^{-1}$

주) P_t: t시점 인구, a: 초기인구, b; 기울기, c: 인구상한선, e: 자연지수, t: t시점

<표 1-4-5> 연도별 장래인구추계

연도	Linear curve model	Exponential curve model	Parabolalic curve model	Modified exponential curve model	Gompertz curve model	Logistic curve model
2013	50,857.18	61,311.86	63,898.33	61,198.64	58,898.23	53,728.57
2014	48,857.18	60,824.64	64,412.18	60,674.58	60,247.83	54,659.58
2015	46,857.18	60,341.28	65,064.10	60,150.23	61,617.19	55,605.78
2016	44,857.18	59,861.77	65,854.06	59,625.59	63,006.34	56,567.37
2017	42,857.18	59,386.06	66,782.09	59,100.66	64,415.32	57,544.58
2018	40,857.18	58,914.14	67,848.17	58,575.43	65,844.16	58,537.63
2019	38,857.18	58,445.97	69,052.30	58,049.91	67,292.88	59,546.73
2020	36,857.18	57,981.51	70,394.49	57,524.09	68,761.51	60,572.10
2021	34,857.18	57,520.75	71,874.74	56,997.99	70,250.05	61,613.97
2022	32,857.18	57,063.65	73,493.04	56,471.59	71,758.52	62,672.57



<그림 1-4-2> 2020년 거창군 인구추계

○ 각 추정식의 통계적 적합성 평가에서 가장 선호되는 모형으로 판단되는 Parabolalic curve model(포물선 모형)에 따라 목표인구 추정

○ 거창군 목표인구는 1단계 목표기간인 2015년 65064명, 2단계 목표기간인 2019년 69,052명, 최종 목표연도인 2022년 73,493명으로 추정

<표 1-4-6> 인구 추정 결과

년도	Parabolalic curve model
1단계 목표년도 2015년	65,064명
2단계 목표년도 2019년	69,052명
3단계 목표년도 2022년	73,493명

2. 지역경제지표

1) 지역총생산 전망

○ 2013년 현재 거창군(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에 대한 추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2008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여 추정을 실시함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산출을 위해 사용된 경상남도의 인구자료는 통계청에서 추계한 시도별 2030년 장래추계인구를 활용하였으며, 거창군의 인구추계는 Parabolalic curve model에 의한 결과값을 활용함

○ 거창군과의 경상남도의 지역내총생산 추계는 지수법을 적용하여 산출함

– 거창군 지역내총생산 추계 함수 : $Y=900,714e^{0.0295x}$

– 경상남도 지역내총생산 추계 함수 : $Y=5E+07e^{0.0858x}$

○ 거창군의 1~3차 계획연도인 2015년, 2019년, 2022년의 지역내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2015년 2.72%, 2019년 2.79%, 2022년 2.83%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경상남도 지역내총생산 대비 거창군의 지역내총생산 비중은 2015년 1.53%, 2019년 1.66%, 2022년 1.78%으로 나타나 점차 도내 지역내총생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1-4-7>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시점	거창군		경상남도	
	GRDP	1인당 GRDP	GRDP	1인당 GRDP
2005	937,324	14.48	58,250,831	18.74
2006	936,056	14.64	61,735,084	19.81
2007	994,376	15.54	69,157,152	22.13
2015	1,245,993	19.15	81,581,057	25.97
2019	1,402,046	20.30	84,372,452	26.97
2022	1,531,783	20.84	86,013,346	27.61

2) 산업 경쟁력 전망

○ 일정기간동안의 거창군 산업부문의 생산액 혹은 고용인구의 변화량 중 국가전체의 성장으로 유발된 변화를 의미하는 국가성장효과는 전 산업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이러한 산업효과는 전체적인 국가 성장 정도를 고려한 것에 근거하여 분석을 시행함

○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j산업 성장률에서 전체산업의 성장률을 감한 j산업부문의 순 성장이 거창군 j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효과인 산업구조효과는 대체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의 산업구조효과는 대체로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경제 성장의 중심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성장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산업 성장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상의 결과와는 달리 국가 성장 정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1차 산업의 성장 정도 역시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성장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간 경쟁력을 통한 지역성장에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경쟁효과는 거창군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에서 타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역 경제력의 중심 산업 중 보조적인 산업으로 인지되는 3차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지역 경제를 보조하는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국가성장력을 제외한 거창군 산업의 순성장력은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 성장 변화분에 대한 구조분해 결과, 지역의 성장을 결정하는 산업은 건설업, 운수업, 그리고 보건사회복지사업으로 나타남
- 이를 제외한 모든 산업의 성장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8> 거창군 산업 효과 전망

(단위 : %, 명)

구분	거창군 성장	국가 성장	고용 변화	국가성 장효과	산업구 조효과	경쟁 효과	순변화	총변화
농업 및 임업	−0.2	0	−27	19.9	−17.2	−29.7	−46.9	−27
광업	−0.3	−0.1	−65	35.8	−55	−45.8	−100.8	−65
제조업	0	0	−58	282.3	−354.2	13.8	−340.3	−58
전기.가스.수도업	−0.2	0.1	−14	12.5	−6.7	−19.8	−26.5	−14
건설업	0.4	0.3	451	172.9	161.6	116.4	278.1	451
도매및소매업	0	0.1	74	469.7	−66.3	−329.4	−395.7	74
운수업	0.2	0.2	149	100.2	17.6	31.2	48.8	149
숙박 및 음식업	0.1	0.1	138	356.1	−187.7	−30.3	−218.1	13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2	3.5	−42	35.1	715.5	−792.7	−77.1	−42
금융및보험업	0	0.2	8	125.8	7.3	−125.1	−117.8	8
부동산및임대업	2.8	0.1	419	24.8	−12.6	406.8	394.2	419
공공및사회보장	0	0.5	51	197.1	354.3	−500.4	−146.1	51
교육서비스업	0.1	0.2	137	262.5	57.3	−182.8	−125.5	137
보건.사회복지사업	0.8	0.7	536	110.4	331.8	93.9	425.6	536
오락.운동관련사업	−0.1	−0.2	−34	48	−92.4	10.5	−82	−34
공공.개인서비스업	−0.1	0	−94	182.8	−128.7	−148.1	−276.8	−94

3. 도시경제지표

○ 거창군 도시경제지표는 인구, 경제활동인구, 사업체 종사자 및 사업체수, 도시화율, 지방세부담 증가분, 재적력지수,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으로 구분함

- 2012년(11년 통계) 대비 계획년도의 인구, 경제활동인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증가는 산출된 인구 증가를 고려한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의 증가정도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음
- 도시화율은 1인당 소득 증가에 의한 도시면적의 증가분을 토대로 추정을 실시
- 지방세부담 및 재정력지수는 재정력지수를 구성하는 지방세입과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토대로 산출

○ 거창군의 2022년 계획연도의 도시경제지표는 2012년 대비 평균 19.0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이중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증가는 2012년 대비 34.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력지수는 13.38%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의 성장동력인 경제활동인구는 16.09%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체종사자의 증가가 18.86% 증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계획됨
- 전반적인 도시경제지표 추정을 통해 거창군의 도시화율은 2012년 대비 0.7%p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화가 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9> 거창군 도시경제지표 전망

구분	단위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인구	명	63,108	65,064	69,052	73,493
경제활동인구	명	46,686	49,798	52,798	54,198
사업체수	개	6,201	6,772	7,180	7,370
사업체종사자수*	농림업(명)	290	317	336	345
	제조업(명)	3,729	4,072	4,318	4,432
	서비스업(명)	11,225	12,259	12,997	13,342
도시화율	%	3.9	4.3	4.5	4.6
지방세부담	백만원	32,653	34,829	36,928	37,907
재정력지수	%	11.3	11.8	12.5	12.9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백만원	1,140,461	1,245,993	1,402,046	1,531,783

* 도시경제지표에 대한 현황은 2012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나, 사업체종사자수는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2011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을 실시함

4. 생활환경지표

○ 거창군의 2022년 생활환경의 변화는 2012년대비 1인당 총생산액의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정을 실시함

– 거창군의 생활환경은 평균 약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2012년 대비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현재까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공원의 증가가 확보됨으로써, 친환경 거주환경에 보다 접근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친주민 의료시설 확보율이 가능해짐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전망됨

<표 1-4-10> 거창군 생활환경지표 전망

구분		단위	2012년	2015년	2019년	2022년
주택	주택수	동	25,832	27,554	29,214	29,989
	주택보급률	%	110.3	118	125	128
기반시설	상수도보급률	%	68.1	73	77	79
	하수도보급률	%	78.6	84	89	91
	도로포장율	%	65.5	70	74	76
교육	초등학교	교	17	18	19	20
	중학교	교	9	10	10	10
	고등학교	교	9	10	10	10
의료	병원	개소	86	92	97	100
	병상수	개	445	475	503	517
	보건소	개소	39	42	44	45
사회복지	아동복지	개소	1	1	1	1
	장애인복지	개소	3	3	3	3
	노인복지시설	개소	9	10	10	10
문화	공공도서관	개소	2	2	2	2
	청소년수련시설	개소	8	9	9	9
체육	경기장	개소	7	7	8	8
공원	자연공원	개소	4	4	5	5
	도시공원	개소	16	17	18	19
	어린이공원	개소	10	11	11	12
	묘지공원	개소	0	1	1	1
	체육공원	개소	0	1	1	2

* 생활환경지표에 대한 현황은 2012년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을 실시함

5. 거창군 발전의 미래상

○ 지역발전의 가장 대표적 지표인 인구증가를 보면 목표연도인 2022년에는 현재의 1.16배인 73,493명으로 추산

- 전국의 대부분 농촌지역이 인구감소세를 면치 목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거창군은 2010년경을 저점으로 인구감소추세가 정체되어 향후 적극적 개발이 이루어 질 경우 포물선 형태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경제적 지표인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 소득상승과 인구증가에 힘입어 GRDP는 목표연도에 약 1.34배 증가하며 1인당 GRDP는 1.1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활동인구도 현재보다 약 1.16배, 사업체수는 약 1.19배 정도 증가

○ 공원을 제외한 기타 인프라 및 시설도 목표연도에 약 1.15배 내외의 양적인 증가가 전망됨

<표 1-4-11> 거창군 미래상 전망

현 재				미 래
구분	단위	2012년		2022년
인구	명	63,108		73,493 (1.16)
GRDP	십억원	1,140		1,532 (1.34)
1인당 GRDP	백만원	18.07		20.84 (1.15)
경제활동인구	명	46,686		54,198 (1.16)
사업체수	개	6,201		7,370 (1.19)
상수도	%	68.1	⇨	79 (1.16)
하수도	%	78.6		91 (1.16)
도로포장	%	65.5		76 (1.16)
학교	개	35		40 (1.14)
병원	개	86		100 (1.16)
공원	개	30		39 (1.30)
지방세부담	백만원	32,653		37,907 (1.16)
재정력지수	%	11.3		12.9 (1.14)